



5월의 보랏빛 향기... 새로운 삶의 시작에 지혜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행운의 꽃, 자카란다. 'Jacaranda' 24" x36" acrylic on canvas. painting by Kyungsoo Lee.

## Cover story 백신 접종률 50%

# 코로나 19 정복 길 열린다

어린이 백신 가을 학기 전 가능  
야외 운동 마스크 착용 완화

코로나 19로 1년여간 '빙하기'에 갇혀 있던 미국이 백신 접종률 50%에 근접하면서 해빙기에 돌입했다.

미국은 4월 말 현재 1차 접종자가 전 인구의 46%에 육박하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3명당 1명꼴인 33%다. 또 잠시 상승세를 탔던 1일 감염자 수도 5만4,000건으로 줄어들어 코로나 19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코로나 19 선언 1년여 만에 야외 활동시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

는 새로운 가이드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는 6월 15일 전면 개방을 목표로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백신 접종률은 4월 말 현재 47%이며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31%로 미국 내 접종률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정섭 기자 14면에 계속



- 소셜 베니핏**  
남편 소셜연금 조기 신청 4면
- 메디케어·메디케이드**  
3개월에 한 번씩 플랜 변경 6면
- 은퇴 플랜**  
전 직장 401(k) 수익 좋다면... 8면



- 유산**  
지정된 연금·보험 수혜자 11면
- 코로나 백신**  
어린이 백신 언제 가능? 14·15면
- 건강**  
암 완치 후 관리 못 하면... 17면

- 잘먹고 잘살기**  
홍지은 기자의 웰빙이야기 22면
- culture & art**  
이경수의 미술이야기 24·25면
- 칼럼**  
김동희 칼럼 26면

일식 전문  
혜밀리 레스토랑

Arado  
아라도 Japanese Restaurant  
213.387.1199  
(월서+윌튼)

예술의 향기가 있는 곳

lee & lee Gallery

(213) 365-8285

3130 Wilshire Blvd #502, LA, CA 90010

leenleegallery.com

US metro news

매월 첫번째 목요일 선보이는 'US 메트로 뉴스'는 생생한 정보, 유익한 읽을 거리와 따뜻한 소통, 맛있는 이야기를 담은 웰빙가이드입니다.

광고·구독·배달 (323)620-6717  
usmetronews@gmail.com

# 서울 메디칼 그룹 메디케어 HMO의 추가 혜택에 대해 알아보까요?



보험에 가입하시기 전에 **전문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치과**

연간 리미트 \$1500 선에서 다양한 치과 진료 혜택 보장  
코페이 \$0 정기 check업  
(메디케어 HMO 플랜 보험회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2**  **침술**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는 커버가 안 되는 침술과  
카이로프랙틱이 일부 플랜은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연간 평균 18회 제공 (보험사에 따라 24~36회 까지 보장)

**3**  **안경**

대다수 안경테 (\$200 까지), 렌즈, 눈검사 등 전체 보장  
(코스트코, 계약되어 있는 다수의 한인 안경점)

**4**  **보청기**

귀 안에 쏙 들어가는 최신 보청기 보험 플랜에 따라  
\$1000 ~2000 까지 보상

**5**  **일반의약품 (OTC)**

보험사 플랜마다 다르지만 3개월에 \$100 정도  
현금을 데빗카드에 입금  
진통제 부터 파스, 각종 건강보조식품 등 처방약이 아닌  
제품을 위한 OTC 구매 지원 제공

**6**  **해외 여행시  
응급치료**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는 커버가 안 되는  
메디케어 HMO 플랜에 따라 적은 곳은 5만 달러에서  
많은 곳은 100만 달러까지 커버

**7**  **차량 제공**

고령의 시니어가 병원이나 주치의 방문 시  
필요한 교통편 제공. 연간 리미트 24회까지  
(메디케어 HMO 플랜 보험회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8**  **운동**

“실버스니커즈” 연계된 24시간 피트니스,  
YMCA 등 전국 1만 4000여 곳의  
유명 피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  
(보험사 플랜에 따라 골프비용 한달에 \$45 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발기부전  
치료제**

주치의 처방시 매달 4~6 알의 발기부전치료제  
(바이아그라, 시알리스) 제공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품과 거의 동일한 효능의  
제네릭 치료제가 제공

**10**  **기타 혜택**

어떤 플랜은 퇴원 후 3~5일간 식사 자택으로 배달  
당뇨 시니어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인  
프리스타일 리브레 제공 등



3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휴매나**

**웰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앤섬  
블루크로스**

**센트랄헬스  
헬스넷**

**브랜드 뉴데이**

**블루실드**

**에트나  
에스티바**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714.367.6867

90% 이상의 한인 의사들이 서울 메디칼 그룹에 가입되어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 올해 5스타 메디케어 플랜, 전국 21개

CMS, 매년 파트 C·파트 D 수행 능력 평가  
 의료 수준, 환자 케어, 만족도, 서비스 등 기준  
 전국 3,350 플랜 중 49%는 4스타 이상

의료 업계는 ‘별’ (star)로 수준을 평가받는다. 특히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에는 스타 점수(star rating)라고 불리는 ‘별’ 점수 제도가 매우 중요한 서비스 평가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평가는 CMS, 즉 연방 정부 ‘메디케어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가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진행한다.

최고 점수는 별 5개, 5성 장군 ‘원수’ 대열이다. 만약 거주 지역에 5성의 최고 점수를 받는 메디케어 보험 플랜이 있다면 12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차례에 걸쳐 아무 때나 5성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별 5개 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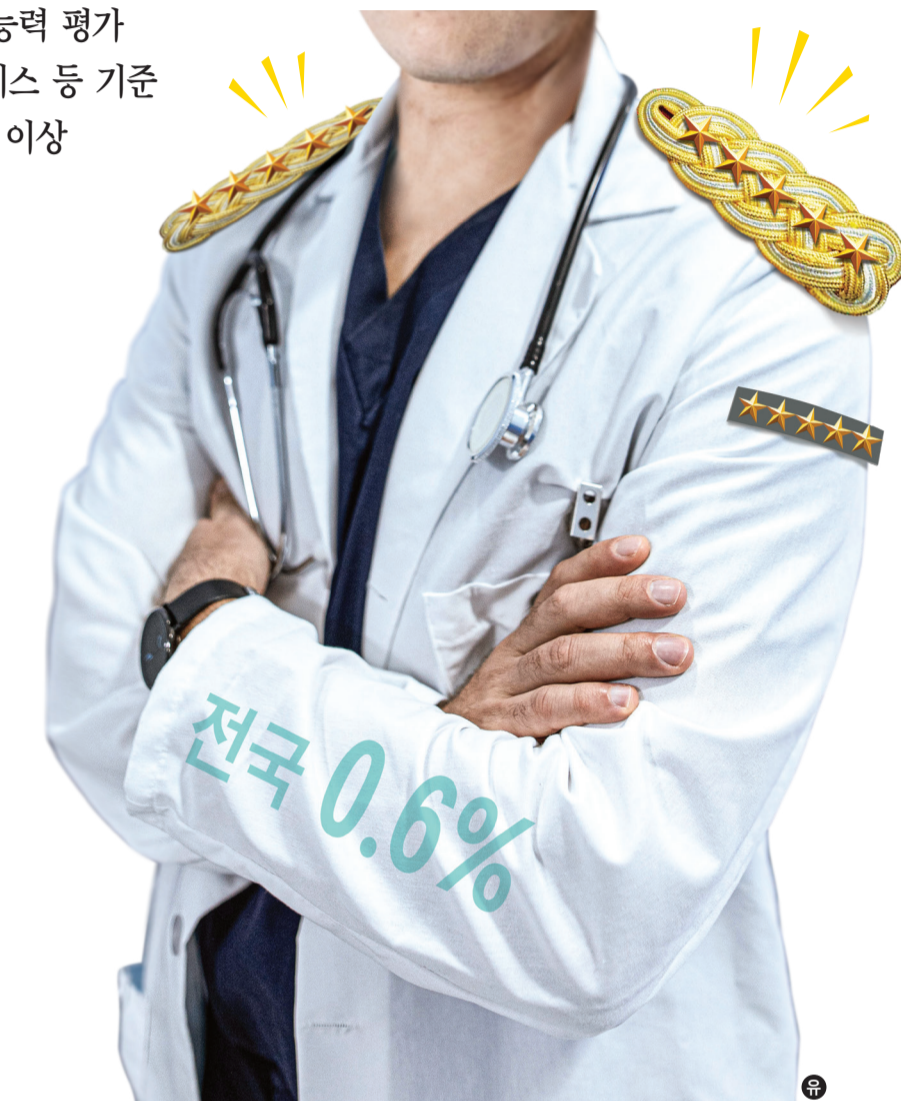
연방 정부에서 별 점수제를 도입한 이유는 메디케어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가입자들이 현재 판매되는 보험 플랜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메디케어의 별점 제도는 일반 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과 파트 D 처방전 플랜에만 해당된다.

### 파트 D 수행 능력 평가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비 혜택을 제공하고 파트 B는 의사와 관련된 진료 및 검사 비용을 지불해 준다. 이를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르며(PPO로 부르지만 잘못된 표현임)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한다. 이 파트 A와 파트 B가 메디케어의 기본 골격이다.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최소 10년의 근로 소득이 있었다면 파트 A는 무료이지만 파트 B는 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21년 보험료는 148.50달러다.

그런데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의약품 처방전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약품 처방전 플랜은 각자가 알아서 구입해야 한다. 만일 처방전 약품 플랜을 구입하지 않으면 다음 가입할 때부터 일정 별금을 평생 내야한다. 이 처방전 플랜을 파트 D라고 부른다.

파트 D는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일반 보험회사가 연방 정부 가이드에 따라



각자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 운영한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이 제품(플랜)이 가이드에 따라 잘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그래서 스타 시스템을 도입해 점수로 평가하고 이를 가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 파트 C 수행 능력 평가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의료비용을 100%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의료 비용의 80%만 커버해주기 때문에 20%는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고 혜택 제한도 많다. 이를 커버하려면 개인 보험회사를 통해 메디 갭이라는 보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파트 D 처방전 플랜도 별도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크다.

그래서 생긴 것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불리는 파트 C 프로그램이다.

파트 C는 1997년 ‘균형예산법’ (BBC)에 따라 2년 뒤인 1999년 메디케어+초이스(M+O)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CMS와 계약한 공공 및 개인 보험회사가 HMO, PPO 등 다양한 연계 의료플랜

을 만들어 역시 CMS 감독하에 운영한다. 파트 C에는 연방정부의 파트 A와 파트 B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은 물론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은 혜택까지 추가된다. 또 2003년부터는 파트 D 처방전 혜택까지 포함됐다.

### 평가 기준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 관리지만 파트 C와 파트 D는 일반 보험회사의 시니어 메디케어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연방 정부는 각 보험회사 상품인 파트 C와 파트 D의 수행 능력을 평가해 매년 점수를 발표한다. 정부가 감독한다고 해도 각 상품마다 수행정도가 다를 것이다. 어떤 상품은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지만 어떤 플랜은 불만도 많고 이용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평가제도가 ‘별점’, 즉 스타(star) 시스템이다.

수행 능력 평가는 의료 및 회원 만족도 설문문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와 상품의 세부 내용을 토대로 정해진다.

점수는 별 1개(1 스타)부터 별 5개(5 스타)까지다. 5 스타는 최고 플랜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CMS의 스타 평가에 따르면 미전국에서 21개 플랜이 5스타를 받았다. 전국에 판매되고 있는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은 3,550개 이므로 0.6%만이 만점을 받은 것이다.

각 플랜의 점수는 매년 변한다. CMS는 연말 연례 가입기간(AEP)에 앞서 매년 가을 점수를 발표해 가입자들에게 플랜 선택권을 넓혀 준다. 또 4스타 이상을 받은 보험회사 플랜은 CMS로부터 추가 보너스를 받는다.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이 보너스를 회원들에게 혜택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보험료 인하하고, 코페이먼트 낮추고 커버 혜택을 늘리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더 좋은 고객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고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코비드 19으로 인해 CMS가 일부 정보 수집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부는 전년도 데이터를 사용해 평가했다.

### 적용 정보

별의 개수는 각 플랜이 얼마나 잘 서비스를 수행하느냐를 말해준다. 플랜 내 여러 가지 항목마다 별을 받게 되고 CMS가 이를 종합해 최종 별 수를 결정한다.

보험 에이전트들은 플랜을 소개할 때 반드시 이 스타 점수를 가입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처방전 플랜을 포함한 파트 C 플랜은 ▲테스트, 스크리닝(영상 검사), 백신 접종 ▲환자 질병에 대한 대응도 및 치료 ▲만성 질환 관리 ▲불만, 문제, 그리고 다른 플랜으로 바꾸는 가입자들 ▲고객 서비스 등 5개 항목에 걸친 44개 또는 32개(처방전 없는 플랜) 수행 분야로 평가된다.

파트 D는 ▲고객 서비스 ▲불만, 문제 떠나는 가입자들 ▲회원 경험 ▲가격의 정확도 및 환자 안전도 등 4개 항목 14개 수행 요인이 고려된다.

CMS에 따르면 2021년 처방전을 포함한 파트 C 플랜의 거의 절반(49%)이 4스타 이상을 받았다. 또 별도의 처방전 파트 D의 76%는 3.5 스타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참고로 3년 연속 2.5 스타 이하의 평점을 받은 플랜은 CMS로부터 경고를 받는다. 올해 2.5스타는 전국 플랜 중 3개 뿐이다.

자넷김기자



# 남편 연금 조기 신청해도 배우자 연금 영향 없어

배우자는 남편의 만기 은퇴 연금 기준으로 산정 62세 때 신청하면 남편 만기 연금의 32.5% 받아 남편이 먼저 신청해야 배우자 연금 가능

1959년생은 올해부터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만 62세로 소셜 연금 신청 나이가 됐기 때문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62세부터 소셜 연금을 신청한다. 남성의 31%, 여성의 27%가 이 연령대에 연금을 신청한다. 이는 과거 50%를 넘는 미국인들이 62세에 소셜 연금을 신청한 것과 비교해 상당히 줄어든 수치다.

그만큼 기대 수명치가 길어져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능한 늦게 받는 것이 평생 유리하다는 인식이 굳어 진데다가 늦게 받을수록 연금 액수는 늘어나고, 또 가능한 늦게까지 일하면서 은퇴를 늦춰 자금을 비축하려는 미국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59년생이 62세에 연금을 신청하면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때 받는 연금의 70.83%만 받는다는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정상 은퇴 연령때 받을 금액이 1,000달러라면 708달러만 받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부부의 경우에는 부인의 배우자 연금도 일찍 받는 남편 따라 연금이 줄어드는지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남편이 62세부터 소셜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남편의 기록으로 배우자 연금을 받는 부인의 소셜 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조기 수령하면 연금액수 줄어들어

이미 알고 있듯이 소셜 연금을 만기 은퇴 연금 이전에 받게 되면(1955년생 66세 2개월) 줄어든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일찍 신청하는 만큼 벌칙을 부과해 연금을 줄여서 평생 지불한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에 신청하면 100% 전액 받을 수 있고 만기를 지나면 70세까지 매년 8%씩 불어난 금액을 받는다.

물론 67세에 받을 수도 있고 68세에 받을 수도 있다. 1년 지날 때 마다 8%씩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는다.

남편 일찍 받아도 배우자 연금에 영향 없어 배우자 연금이란 평생 일을 하지 않았거



연령대별 만기 은퇴 연령과 62세 신청때의 연금 차이 비교

생일 연도	만기 은퇴		62세 신청			
	만기(정상) 은퇴 연령	은퇴까지 남은 달수(개월)	연금 1,000달러 감소금액(달러)	은퇴연금 감소폭(%)	배우자 연금 500달러 감소분	배우자 연금 감소폭(%)
1943~1954	66세	48	750달러	25.00%	350달러	30.00%
1955	66세 2개월	50	741	25.83	345	30.83
1956	66세 4개월	52	733	26.67	341	31.67
1957	66세 6개월	54	725	27.50	337	32.50
1958	66세 8개월	56	716	28.33	333	33.33
1959	66세 10개월	58	708	29.17	329	34.17
1960이후	67세	60	700	30.00	325	35.00

나 일을 했어도 세금 기록이 적은 배우자에게도 일한 배우자(남편 또는 부인)의 세금 기록으로 배우자가 받는 소셜 연금의 최대 50%까지 지불하는 규정이다. 과거 평생 가정과 자녀를 돌보며 일을 하지 않고 살림을 도맡아 했던 부인들에게도 소정의 보상을 준다는 차원에서 제정된 연금 제도다.

배우자 연금은 일한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소셜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한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미치지 못한 나이에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는다면 배우자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궁금하다. 일찍 신청해 받는 남편 연금의 최대 50%까지 받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59년생이 만기 은퇴 연령때 받을 돈이 1,000달러인데 62세 받는다면 앞서 말한대로 708달러만 평생 받는다.

그러면 부인도 남편이 평생 받는 연금 708달러의 최대 50%만 받느냐는 질문이다. 대답은 아니다.

배우자 연금은 남편의 조기 연금 수령에 관계없이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에 받게 될 연금의 최대 50%다. 만약 59년생 남편이 62세가 되는 올해 연금을 신청해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59년생의 만기 은퇴

연령이 66세10개월이므로 당연히 29.17%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부인이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연금을 신청한다면 남편의 줄어든 금액을 근거로 배우자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 남편 기초보험금의 최대 50%

배우자 연금은 근로 기록이 있는 남편의 '기초보험금' (Primary retirement amount)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기초보험금은 남편이 만기 은퇴연령때 받는 돈이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왜 연금을 부를 때 보험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까. 이는 일한 사람의 평생 낸 세금을 정부에서 거두어 모았다가 미국 국가 채권에 투자해 불린 돈을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소셜연금은 가입자에게 평생 지불되는 일종의 보험금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론으로 돌아가면 배우자 연금을 근로 기록이 있는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때 받게 되는 '기초보험금'을 근거로 지불하므로 부인은 남편이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느냐에 관계 없이 부인의 신청 나이에 의해서만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앞선 예에서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때

받을 돈이 1,000달러였다면 부인의 배우자 연금은 남편의 최대 절반인 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부인도 일찍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그만큼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된다.

### 연금 계산의 예

배우자 연금의 예를 들어 보자. 근로 기록이 없거나 부족한 배우자가 일한 남편 또는 부인의 크레딧으로 배우자 연금을 신청한다면 일한 배우자의 기초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받는다.

만약 남편 또는 부인의 기초보험금이 1,600달러인데 일하지 않은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 36개월전에 연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자. 소셜시큐리티국은 남편 또는 부인의 만기 연금 1,600달러의 절반인 800달러에서 매달 25/36%씩 삭감해 총 25%의 연금을 줄인다. 따라서 배우자가 만기 연령에 받을 수 있는 800달러에서 25%를 뺀 600달러만 배우자 연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결국 일한 배우자가 받는 금액의 37.5%가 배우자 연금으로 지불된다는 계산이다. 이 배우자 연금은 유족 연금과는 다르다. 유족 연금 계산은 다음에 추가 설명하겠다. 김정섭 기자



# 1956년생, 메디케어 신청하고 HSA 적립 못하고

<65세>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

## 5월생 소셜 연금 신청하면 8.9% 덜받아 일한다면 IRA등 은퇴연금 계속 적립

소셜 시큐리티 전문가들은 65세를 매우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보고 있다. 은퇴했거나 아니면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예비 은퇴자들 모두에게 재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세금과 각종 베니핏을 점검해 봐야 할 나이다.

### 소셜시큐리티 만기 은퇴까지 14개월 남아

지난 수십여 년 동안 65세는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의 만기 은퇴 연령이었다.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연령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1938년 이후 출생자부터 만기 은퇴 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해 1943~54년생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다. 이후 출생연도가 1년 지날 때마다 은퇴 연령은 매달 2개월씩 늘어나 1960년생 이후 출생자는 67세가 만기다.

물론 62세부터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만기 은퇴 연령 때 받은 소셜 연금보다 대략 25~29%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올해 65세가 되는 1956년생이 소셜 연금을 신청하면 만기 은퇴 연령(66세 4개월)보다 14개월 일찍 신청해 받는 것이다. 연금도 8.9% 줄어든다. 일찍 신청해 받으면 신청자 본인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청 당사자가 숨지면 소셜 연금은 배우자 베니핏으로 전환돼 배우자 역시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을 하면서 만기 이전에 소셜 연금을 받으면 번 돈의 일부만큼 소셜 연금이 공제돼 지불된다<4월호 참조>.

### 메디케어 가입

시니어 건강 보험인 메디케어는 직장보험이 없는 한 변함없이 65세에 가입해야 한다. 이미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는 자동 가입되지만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소셜 시큐리티국을 통해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어 가입은 65세 생일을 맞는 달을 포함해 전후 3개월씩 총 7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메디케어는 소셜시큐리티국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해야 하거나 직접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 요즘은 코비드 19로 소셜 시큐리티 지역 사무실들이 문을 닫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만약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이 있다며 65세가 됐다고 해도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일을 그만 두면서 건강 보험도 없어진다면 보험을 잃은 달부터 8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비용을 커버해 주는데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공짜로 받기 때문에 일을 해도 65세에 대부분 신청한다. 하지만 의사 진료비를 커버해 주는 파트 B는 2021년 기준으로 148.5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만약 정해진 기간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12개월마다 파트 B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그런데 직원 수 20명 미만의 직장에 다닌다면 65세에 가입하는 메디케어가 1차 보험이 되고 은퇴 건강 플랜이나 퇴직자 한시적 보험인 COBRA는 2차 보험이 된다. 따라서 65세에 반드시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HSA) 이용하기

만약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가지고 있다면 65세부터 세금 없이 의료 비용으로 찾아 쓸 수 있다. 또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파트 B에 가입했다면 돈 적립은 할 수 없다.

의료비 이외의 목적으로 돈을 찾아 쓰면 20%의 벌금을 물지만 65세가 지나면 의료비 이외의 목적으로도 찾아 쓸 수 있

다. 다만 일반 소득세를 내야 한다.

### 세제 혜택

65세부터 연방 세금 보고할 때 표준 공제액수가 늘어난다.

2021년 표준 공제는 독신 1만2,550달러, 부부 2만5,100달러이지만 65세부터 독신 표준 공제가 1,700달러 더 많은 1만4,250달러, 부부는 2만6,450달러이다. 젊은 부부보다 1,350달러 많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은 노인 또는 장애 택스 크레딧 혜택도 가능하다. 또 일부 주는 일정 금액의 주택 공제도 제공한다.

### 은퇴 적립 계속하기

65세에도 파트타임, 프리랜서 등 일을 계속한다면 은퇴 연금을 적립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로스 또는 전통 IRA에 나이와 관계없이 돈을 계속 적립할 수 있다. 만약 65세부터 75세까지 매년 7,000달러씩 IRA에 적립하고 매년 5%씩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75세에는 10만 달러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또 근로 소득이 낮다면 은퇴 연금에 적립하는 돈을 세금 보고 때 택스 크레딧으로 되돌려 받는 추가 혜택도 받는다<4월호 참조>.

존김기자

## 오바마케어 가입자 299 환불 받을 듯

### 팬더믹으로 지출 줄어 보험회사들 흑자

지난해 오바마케어(전 국민 건강보험·ACA)에 가입했다면 올가을 보험회사로부터 다소간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일반 보험회사들이 올 가을 1,070만명 이상의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자들에게 총 21억달러를 돌려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25억달러에 달하는 보험료가 가입자들에게 환불된 이후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올가을 개인이 받게 되는 환불금은 대략 299달러다.

환불 이유는 지난해 일부 보험회사들은 팬더믹으로 인해 ACA가 규정한 80% 지출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팬더믹으로 인해 병원들이 수술을 취소했고 소비자 역시 코비드에 걸릴 우려로 진료소 방문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계속 냈고 보험회사들은 팬더믹 이전처럼 보험료 사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 상당한 이익을 내게 된 것이다.

각 개인이 얼마를 받을 지는 올 가을에 가서야 알 수 있겠지만 개인은 대략 299달러, 소규모 그룹 보험은 127달러, 대규모 그룹 보험 가입자는 95달러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알립니다



프리미엄 웰빙 전문지 US 메트로뉴스가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5월 말 오픈합니다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보험, 은퇴 플랜, 건강, 투자, 문화, 칼럼 등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문의 (323)620-6717



# 메디케이드(메디칼) 있으면 분기마다 플랜 변경

극빈층 자격 잃으면 3개월 내 플랜 바뀌야  
보조금 끊겨 자칫 낭패 볼 수 있어 주의  
의약품 보조 LIS 상실하면 2개월만 유예

메디케어 가입자가 플랜을 변경하려면 3 종류의 변경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는 AEP라고 부르는 정기 변경 기간이고 두 번째는 가입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한차례 변경할 수 있는 오픈 가입 기간, 즉 OEP,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꾸는 특별 가입 기간, SEP이다.

### AEP

메디케어 가입자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7주간에 걸쳐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연례 플랜 변경 기간' (Annual Enrollment Period)라고 부르며 일반에게는 AEP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기간 중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주치의 제도인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고 또 파트 C를 다른 Part C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 의약품 처방전 플랜인 파트 D에 가입해 오리지널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처방전 플랜 파트 D 역시 보험사 변경, 플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는 원하는 만큼 계속 플랜을 바꿀 수 있지만 맨 마지막에 신청하는 플랜이 다음 해 가입자의 건강을 책임질 최종 보험으로 결정된다. 이때 신청한 플랜이 이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제공되는 보험이다.

### OEP

하지만 이때 선택한 플랜을 가입자가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못 알아들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1년을 원치 않는 플랜에 묶여 짜증만 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불만을 바로잡게 위해 연방 정부가 또 한차례 변경 기회를 준다.

이를 '오픈 가입기간' (open enrollment period), 즉 OEP로 부른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다. 연말 AEP 기간 중 변경한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때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플랜을 바꿀 수 있는 AEP와는 달리 OEP에는 단 한 차례만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오리지널 메디

케어를 파트 C 어드밴티지로 바꿀 수 없다.

### 특별 가입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SEP)

일반 메디케어 가입자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연말과 연초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외에는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랜을 바꿀 수 없다. 특별한 경우란 이사를 했거나 직장을 그만둘 때, 혜택 자격이 변경될 때 등등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

이들 특별 사유 중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를 주목해 보자.

메디케이드(메디칼)는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혜택으로 연방 정부의 일반 회계비로 지원받은 주 정부가 빈곤층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메디칼)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 비용을 거의 내지 않고도 모든 의료 혜택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메디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기간은 1~3월, 4~6월, 7~9월이며 마지막 분기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일반 AEP 기간에만 변경할 수 있다. 3년 전만 해도 매년 바꿀 수 있었지만 최근 분기별로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보험 에이전트들이 커미션 문제로 애를 먹기도 했다. 많은 한인 등 미국인들이 입소문에 따라 혜택이 다른 보험회사들의 플랜으로 매달 바꾸기도 했다. 이럴 경우 에이전트는 보험회사에서 지불된 커미션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 ◇자격 바뀌면 플랜 변경해야

정부에서 메디케이드(메디칼)를 가진 사람들에게 매 분기마다 특별 가입 기간을 두는 이유는 메디케이드(메디칼) 자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는 수입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 자격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진다. 연방 빈곤선을 기준으로 일부 주는 133% 또는 138% 미만의 수입과 자산 2,000달러(부부 3,000달러) 미만이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연방 빈곤선(100%)은 개인의 경우 연 1만2,880달러다. 캘리포니아는 연방 빈곤선 138%까지 혜택을 준다. 1인 연 1만7,237달러이며 부부는 2만3,792달러까지다.

그런데 수입이 메디케이드 기준을 넘어 자격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수입이 줄어들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수입의 변화는 연중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특별 가입 기간, SEP을 두고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플랜 변경 기간을 예외로 적용해 두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메디칼)를 가진 사람들(이를 듀얼 자격, 이중 자격이라고 부름)이 가입하는 플랜은 일반 메디케어 가입자들과는 다를 수 있다. 일반 메디케어 가입자보다도 비용 부담이 훨씬 적어 거의 돈을 내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보험 상품 자체는 오히려 메디케어만 가진 것보다 더 비싸다.

보험회사는 일반 메디케어 플랜의 진료비나 디덕터블, 보험료를 매우 낮게 책정해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중 자격을 가진 가입자의 플랜에는 보험료는 물론이고 진료비나 디덕터블, 코페이먼트 등을 더 높게 책정해 둔다. 책정된 비용은 메디케이드에서 모두 지불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에게 부담이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입이 높아져 이중 자격이 박탈돼 일반 메디케어 혜택만 받게 되면 높게 책정된 비용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자격이 박탈됐다면 가격이 낮은 일반 플랜으로 바뀌어야 한다. 만일 자격을 잃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달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플랜 또는 파트 D 플랜으로 변경해야 한다.

처방전 파트 D 역시 저소득층에게 '엑스트라 헬프' 또는 '저소득층 보조금' (LIS) 혜택을 제공한다. 메디케이드 자격과 동일하게 자격을 잃게 되면 2개월 이내에 플랜을 변경해야 비싼 비용을 내지 않는다.

자넷김기자

웰빙 가이드 [wellbeingsus.com](http://wellbeingsus.com)  
**US 메트로 뉴스**

**OH MY GOSH**  
**정보가 많아서 좋아요**



광고·구독·배달  
**(323)620-6717**  
[usmetronews.com](http://usmetronews.com)

환자를 최고로 생각하고 치료하며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2017·2018·2019·2020년  


---

  
**최우수 별 5개**  
**서울 메디칼 그룹**  


---

**BEST 4년 연속 선정**  
 환자 만족도 · 의료진의 진료 수준  


---



배우 이순재



**시니어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최적의 의료 시스템 - 메디케어 HMO**

미주 전국 9개 지역의 4200명 의사 선생님들께서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714.367.6867

# 전 직장 401(k) 수익 좋다면 옮기지 않아도 'OK'

팬더믹으로 일찌감치 직장을 떠나는 한인들이 많아졌다. 자의건 타의건. 그냥 훌훌 털어내고 직장문을 나서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 401(k)에 가입했다면 처리를 놓고 고심을 하게 된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현 직장에 401(k)를 그대로 유지해 둘 수도 있고 개인 은퇴 연금 계좌인 IRA로 옮겨 놓을 수도 있다. 55세가 지난 후 직장을 떠났다면 벌금 없이 찾아 쓸 수도 있다.

### 401(k) 적립금 찾아쓰기

59.5세가 지나면 조기 인출로 인한 벌금 없이 401(k)에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하지만 찾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는 59.5세가 지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찾아 쓰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401(k)는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에서 돈을 떼어 적립하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401(k)'도 있지만 이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세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전통 401(k)'가 일반적이다.

### 55세 규칙

만약 55세가 지난 후 직장을 그만둔다면 벌금 없이 401(k)에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그러나 401(k)를 개인 은퇴 계좌인 IRA로 이체시키면 55세 벌금 면제 조항은 소멸되고 59.5세부터 돈을 찾아야 벌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연령 규정 이전이라도 벌금 없이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 최소인출금(RMD) 규정

다니던 직장에 401(k)를 그대로 뒀다면 72세 전까지(70.5세에서 늘어났음) 돈을 한 푼도 찾지 않고 그대로 넣어 둘 수 있다. 하지만 72세가 지나서부터는 매년 세법으로 정한 만큼의 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최소인출 RMD 규정이라고 부른다.

RMD는 해당 직장에 계속 다니고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재직하는 동안 RMD를 찾지 않아도 된다. 물론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는 RMD 규정에서 제외된다. 72세가 지나도 돈을 찾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로스 401(k)'는 일반 401(k)와 같이 72세부터



그래픽 유

RMD가 적용된다.

### 관리비용 비교하기

401(k) 플랜과 관련된 행정 및 투자 자문 비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매년 401(k) 관리회사로부터 연례 보고서를 받을 것이다.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관리비가 높다면 낮은 펀드를 찾아 옮겨 놓을 수 있다. 또 개인 은퇴 계좌인 IRA 관리비용과 비교해 비싸다면 돈을 옮길 수도 있다. 규모가 큰 대형회사는 담당 은퇴 플랜 회

사와 협상해 행정 비용을 낮춰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곤 한다. 하지만 현재의 관리비가 높다면 비용이 낮은 IRA를 개설해 옮겨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 투자 고려하기

대부분의 401(k)는 투자 항목이 IRA처럼 다양하지 않다.

만약 현재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든다면 구태여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투자처가 많지 않은 401(k)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IRA로의 이체를 권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401(k) 플랜은 투자 펀드가 10여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IRA는 개별 주식부터 뮤추얼펀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포함해 수천종류의 투자처를 제공한다. IRA의 다양한 투자처를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하나의 은퇴 플랜으로 통합하기

만약 여러 개의 401(k)나 IRA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면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하나의 IRA로 통합시키라고 조언한다. 401(k) 또는 다른 IRA어카운트를 한 개의 IRA로 이체, 통합시키라는 것이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의 401(k)를 현재 다니는 직장의 401(k)로 이체시킬 수도 있다. 통합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시킬 때는 계좌 대 계좌로 직접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할 때는 60일 이내에 입금시켜야 한다. 다만 돈을 받을 때 IRS는 20%를 선 세금으로 우선 공제해 둔다. 따라서 60일 이내에 다른 계좌로 입금시킨다고 해도 IRS에서 공제한 20%만큼의 현금을 추가 마련해 입금해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 이전 직장에 그대로 두기

401(k) 계좌에 5,000달러 이상 투자했다면 대부분 플랜이 직장을 그만뒤도 401(k)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투자금이 1,000달러 미만이라면 이전 직장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금이 1,000달러에서 5,000달러라면 어떻게 될까. 직장에서 강제로 내보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직장에서 개인 은퇴 계좌 IRA 개설을 도와줘야 한다.

뉴저지의 '트루 컨트리안 투자사'의 스티븐 캐플란 대표는 "401(k) 플랜이 있는 직장을 그만둘 때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계속 이전 직장에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투자종목이 다양하지 않아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재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IRA로 이체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재정적 문제로 파산 한다면 401(k) 플랜 내 적립금은 법원에서 차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IRA 어카운트는 주 법에 따라 법원 차압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존김기자



<401(k)·직장제공>

# ‘은퇴 플랜’ 일반 채무 변제 의무 없어



직장 은퇴 플랜과 개인 은퇴 플랜(IRA)은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으로 적립해 불려 나가며 은퇴를 대비한 든든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은퇴 때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하지만 채무에 관련된 소송을 당한다면 자칫 은퇴를 대비해 모아둔 돈을 날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 은퇴자들의 몫이기도 하다.

간단히 정리한다면 401(k), 펜션 등 직장에서 제공해주는 은퇴 플랜은 일반 채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은퇴 계좌인 IRA는 주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부채로 인해 압류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참고로 국제 증권 투자 회사 협회인 ICI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미국 가정의 63%는 직장 은퇴 플랜 또는 개인 IRA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가정의 36%는 전통 IRA와 로스 IRA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보유 IRA 상당수는 직장 은퇴 플랜에서 롤오버 시킨 계좌들이었다.

**IRA**  
주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은퇴 연금 IRA는 부채 소송을 당하면 압류 당할 수 있다.

401(k)를 포함해 기타 직장 은퇴 플랜과는 다르게 개인 은퇴 연금 플랜인 IRA(전통, 로스 모두 포함), SEP, SIMPLE IRA 어카운트는 ERISA라고 부르는 ‘종업원 은퇴 수입 안정법’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 ERISA는 1974년 제정된 직장 은퇴 플랜 보호 법이다. 다시말해 직장 제공 은퇴 플랜은 100% 부채로부터 보호받지만 개인 IRA 계좌는 동일한 보호를 못 받는다는 말이다.

ERISA에 의해 보호를 받는 은퇴 플랜으로는 401(K), 펜션, 이익공유 플랜, 그룹 건강 및 생명보험 플랜, 초과안과 플랜, 의료저축플랜(HSA), 사고사망 및 장애 혜택 등 직장 제공 플랜이다.

반면 ERISA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랜으로는 IRA, 로스 IRA, 심플 IRA, SEP, Keogh 플랜, 교사의 403(b), 종업원이 아

## IRA는 주법에 따라 다르지만 압류될 수도 연방 세금, 자녀 양육비는 반드시 갚아야

닌 고용주 혜택 은퇴 플랜, 정부 또는 교회 플랜 등이다.

### 연방 부채는 IRA에서 강제 징수

주정부 마다 각자의 IRA 압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주가 자녀 양육비와 이혼 수당 등 가정과 관련된 채무는 IRA에서 압류하도록 하고 있다. IRA 강제 압류 중 가장 많은 사례다.

밀린 세금이나 벌금 등 연방 정부와 관련된 부채는 IRA에서 강제 징수된다. IRA는 연방 부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파산의 경우는 다소 예외가 적용된다.

예전에는 일반 부채를 피하기 위해 모든 돈을 IRA에 넣은 후 파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05년 ‘파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돼 100만 달러까지만 보호받는다.

### 주마다 규정 달라

주정부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르다. 뉴욕과 뉴저지와 같은 일부 주는 연방 정부 부채를 제외한 모든 채무로부터 IRA를 보호해준다.

뉴햄프셔와 뉴 멕시코는 IRA에 대한 보호정책이 전혀 없다.

텍사스, 애리조나, 위싱턴은 거의 모든 IRA 적립금에 대해 보호를 해주고 있다. 특히 애리조나는 파산 신청 이전 120일 이내에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비나 위자료 등 가정과 관련된 채무도 주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모든 주가 IRA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IRA에서 양육비를 강제 집행해 갈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매우 애매한 주법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상해 소송을 당할 경우 직장 은퇴 플랜 401(k)는 보호를 해주지만 개인 IRA는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법원은 자체 판단으로 IRA 소유

주가 생활에 필요한 비용만큼만 보호해 준다. 당사자와 배우자가 은퇴 후 쓸 금액 정도까지 만 보호해 주고 나머지는 배상 비용으로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 후 필요한 만큼의 정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IRA 계좌에 15만달러가 적립돼 있다고 가정하자. 40세로 건강하며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부양가족도 없고 연 6만달러의 수입을 올린다면 거의 모든 적립금을 압류해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반면 65세의 나이로 건강도 좋지 않고 직업도 없다면 판사는 압류 대상에서 IRA를 제외시켜줄 것이다.

### 조기 인출 벌금 면제 조항

59.5세 이전에 IRA에서 돈을 인출하면 10%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만약 59.5세 이전에 IRA에서 채무가 변제된다면 금액만

큼 10%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연방 부채로 인해 압류될 때는 조기 인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벌금이 면제된다.

### 롤오버 보호

많은 사람들이 401(k)를 IRA로 이체시키면 소송을 당하거나 채무가 발생할 때 압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캘리포니아는 ERISA 어카운트, 즉 401(k)를 비 ERISA 어카운트인 IRA로 이체(롤오버) 시켰다면 100% 보호해 준다. 다만 IRA내 적립금이 401(k) 어카운트에서 이체됐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401(k)

앞서 설명한 대로 401(k)는 ERISA 계좌이므로 일반 채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직원들이 아닌 사업주를 위한 ‘솔로 401(k)’는 ERISA 어카운트가 아니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401(k) 역시 세금 등 연방 부채가 있을 경우 압류될 수 있다. 특히 자녀 양육비 또는 위자료 역시 401(k) 계좌에서 압류 집행될 수 있다.

삶과 영어를 재밌게 버무린

[www.LifeEnglish54.com](http://www.LifeEnglish54.com)

“미국을 알려면 ‘최운영의 인생 영어’ 를 보라”

‘최운영의 인생 영어’는 공인 통역사인 최운영(66)씨가 과란만장한 미국 살이 50년의 경험담을 화면 가득 녹여내 5년째 들려주는 유튜브 방송이다.

경기도 2년 가족 이민으로 미국 온 그는 방송 기자 시절인 1992년, LA 폭동 때 불타는 한인 비즈니스를 수수방관하며 폭동을 방지했던 대릴 게이츠 전 LA 경찰국장을 거침없이 몰아친 ‘바람의 아들’로도 유명하다.

그가 아직도 식지 않은 열정으로 영어부터 미국의 정치, 경제, 스포츠, 문화 등 모든 토픽을 넘나들며 통렬한 비판과 남다른 분석력, 그리고 독특하고 시원한 입담으로 유튜브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It takes one to know one -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는 그의 강의 처럼, 방송을 듣다 보면 스스로 고수 반열에 올라 그가 고수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제작은 송지원씨가 맡았다.

# 집 유산 받으면 생활 보조금 받는데 문제 생겨

1주택이라면 예외 조항 적용돼 영향 없어  
특수 목적 트러스트 개설해 신탁 보존 가능  
장애인 신탁 기금으로 의료비 등 지출

집을 유산으로 받는다면 무한한 행운이겠다. 그러나 SSI를 받고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잠정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는 연방정부에서 극빈자들에게 제공하는 생활 보조금이다. 일해서 낸 세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구호 기금이기 때문에 집을 물려받으면 SSI 자격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사회보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정부가 받아 불려 나간 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 메디케어 등)으로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주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일을 했어도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거나 아예 세금을 낸 경험이 없는 극빈자들에게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구호기금과 메디케이드와 같은 극빈자 혜택이다. 설명한 대로 소셜 베니핏은 근로자가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극빈자 보조금인 SSI는 일반 국민이 낸 일반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런 이유로, 소셜 연금(SSA)을 받는 사람들이 집을 유산으로 받는다면 더할 수 없는 축복이 되겠지만 극빈 구호 기금인 SSI는 혜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SSI 자격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미만의 재산이 1차 기준이다. 재산으로는 현금, 은행 어카운트, 주식, 뮤추얼펀드, 생명보험, 자동차, 동산, 땅이나 집 같은 부동산이 해당한다. 만약 물려받은 주택이 개인이나 부부의 재산 한계를 넘어선다면 더 이상 SSI를 받지 못할 것이다.

다행이도 SSI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택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거나 ▲별도의 '신탁' (트러스트) 구조를 개



설해 유산으로 받은 부동산을 넣어 두는 방법이다.

## 주택 예외 조항

SSI는 자격을 심사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를 '주택 예외조항'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SSI를 받는 사람이 물려받은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고, 이 집이 유일한 주택이라면 유산으로 받은 집은 SSI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SSI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집이 지어져 있는 땅을 함께 물려받았다면 자격 심사 때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집 옆에서 있는 땅을 함께 받았다면 그 땅은 재산으로 포함돼 SSI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물려받은 집에 들어가 살지 않고 팔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의 공동 명의자가 그 집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유산으로 받은 주택을 마음대로 팔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집은 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일한 주택과 같이 취급돼 SSI 수혜 자격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특수 목적 트러스트(Special Needs Trust)

SSI를 받는 사람이 물려받은 주택을 '특수 목적의 트러스트'에 넣어 두면 개인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아 SSI 수혜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보통 이런 트러스트

는 은행의 트러스트 담당 부서에서 개설해 준다. 이런 종류의 트러스트는 장애인들을 위한 신탁제도다.

이 트러스트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장애인 스스로가 물려받은 유산을 신탁하는 '당사자 특수 목적 트러스트' (first-party special needs trust)와 당사자가 개설할 능력이 없어 ▲부모나 조부모가 장애인 후손을 위해 개설해 유산으로 물려주는 '제3자 특수 목적 트러스트' (third-party special needs trust)가 있다.

이런 트러스트는 되돌릴 수 없다. 다시 말해 개설자나 수혜자가 신탁에 들어 있는 부동산을 되찾을 수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언젠가 수혜자가 신탁에 들어 있는 부동산을 되찾아 가는 '되돌릴 수 있는 트러스트' (revocable trust)에 부동산이 들어가 있다면 이 부동산은 SSI 자격 심사에 영향을 준다.

이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재산은 신탁 관리자가 관리를 맡으며 장애인 SSI 수혜자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주는 데 사용된다. 음식이나 주거지 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의료비용, 유틸리티, 오락, 교육비 등으로 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적 장애의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특수 목적 트러스트를 만들어 집을 물려주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부모 사후 장애 자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꼭 전문가에게 문의할 것은 권한다. 김정섭 기자

# 지정된 연금·보험 수혜자는 유언장보다 우선

재산 많지 않아도 유산 계획 세워야  
유산계획 없으면 '프로베이트' 거칠 수도  
의료 의향서, 재정 위임권 등 미리 정해라  
자주 업데이트 해야 혼선 없앨 수 있어

유산 계획을 물어보면 막연하게 대답하는 한인들이 많다. 재산 없는데 무슨 유산 계획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산 계획은 재산이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주택, 부동산 등 소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 펜션, 귀중품, 심지어는 부채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놓는 작업이다. 특히 중병에 걸렸을 때 어떤 치료까지만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어야 남아 있는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유산 계획을 세워 두지 않으면 재산은 법원으로 넘어가 정리되는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복잡한데다가 해결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 유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곤 한다.

### 재산 목록 정리 해보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무슨 상속 계획이냐"고 반문하는 한인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곰곰이 주의를 돌려보면 그래도 크고 작은 유·무형 소지품들이 있게 마련이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반지가 될 수 있고 몰래 숨겨둔 현금이 될 수 있다.

일단 유형과 무형의 두가지로 분류해 보자.

주택, 땅 또는 기타 부동산부터 자동차, 오토바이, 보트 그리고 동전 수집, 우표 수집, 고물품, 예술품과 기타 개인 소지품 등등이 유형 재산이 될 수 있다. 또 은행 체크 계좌, 저축 계좌, CD,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생명보험, 401(k), IRA 등 개인 은퇴 플랜, 건강 저축 플랜, 비즈니스 소유권 등이 무형 재산으로 분류된다.

일단 재산 목록을 적고 나면 각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값을 매긴다는 말이다. 주택이나 부동산은 스스로 시세를 파악하기 힘들므로 전문가의 시세 평가를 받는 것도 좋다.

이렇게 재산을 종합하면 누구에게 얼마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

### 가족에게 넘겨줄 것들 정리

일단 재산이 정리되면 사후 가족들과 재산 관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는가 등등. 결혼을 했고 가족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상속 계획 중 하나다.

특히 장애 자녀를 두고 있다면 더욱 필요하다. 나이가 젊다면 생명보험 정도는 가입해 놓는 것도 가족에 대한 예의다.

자녀들이 어리다면 유서를 작성할 때 자녀들을 보살펴줄 가디언(보호자)을 선정하고 만일을 대비해 또다른 가디언을 추가로 선정한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고인의 재산이 불필요하게 법원으로 넘어가 정리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

### 지침서 만들기

유산 계획에는 합법적 지침이 포함돼야 한다.

대표적 서류가 트러스트(신탁)다. 생전에 작성하는 '리빙 트러스트'로 재산의 처리 지침을 세워둔다. 병을 얻었거나 판단 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미리 지정해 둔 신탁 관리인이 권한을 이어받는다. 이후 사망하면 신탁 재산은 법원의 자산 분배 과정(프로베이트)을 거치지 않고 정해 둔 수혜자에게 넘겨진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자산 규모 16만6,500달러 미만은 유언이 없어도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족에게 넘겨진다.

의료 의향서, 즉 생명 선택 의향서(living will)를 작성한다. 스스로 생명에 관련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어질 때, 치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지침서다. 또 의

향서 대신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평소지론을 대신해 줄 의학 대리인(power of attorney)을 지정한다. 둘을 묶어 '리빙 윌'을 만들 수도 있다.

재정 위임장도 필요하다. 신체 불능일 때 재정 문제를 대신 처리해준다. 유틸리티 비용부터 세금,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일을 해 줄 것이다. 제한적 재정 위임권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택 판매 때 대신 서명할 수 있게 위임할 수도 있고 특별 주식의 판매하는 권한을 넘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임권을 누구에게 주는 나다. 재산이나 생명 권한까지도 넘겨주는 것이므로 진심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

### 재산 수혜자를 정한다

은퇴 구좌나 보험이 유언장과 기타 서류에 누락될 수도 있다.

은퇴 플랜과 보험 상품은 보통 수혜자(beneficiary)를 두게 돼 있다. 지정된 수혜자는 유언장보다 우선이다. 따라서 올바르게 수혜자를 지정했는지 자주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수십여년 전 누구를 지정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이혼 한 배우자의 이름이 그대로 수혜자로 지정돼 있다면 이들 재산은 이혼 배우자에게 모두 갈 것이다. 그렇다고 수혜자 지정란을 공백으로 두어도 안된다. 정해지지 않은 구좌는 프로베이트 법정으로 가게 되고 주법에 의해 분배되게 된다.

2차 수혜자도 지정해 놓는다. 만약 1차 수혜자가 죽는다면 다음 2차 수혜자가 재산을 이어받는다.

### 주 상속세법 숙지하기

유산 상속 계획에는 상속세 대처 방안도 포함된다. 하지만 거부가 아닌 이상 미국인 대부분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연방 법으로 2021년 기준 상속세는 개인 1,170만달러 이상 재산에만 해당된다. 부부라면 금액이 2,340만달러 이상이면

로 세금을 낼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 DC를 포함해 하와이, 워싱턴, 오리건, 매사추세츠 등 12개주는 부동산 상속세를 부과하고 매릴랜드 등 6개주는 동산도 상속세를 받는다. 캘리포니아는 다행히 주 상속세가 없다.

### 전문가 조언받기

재산 정도나 상황에 따라 전문 변호사 또는 상속세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도 좋다.

재산이 적고 유언도 간단하다면 요즘 인터넷 온라인 또는 패키지 유언장 쓰기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된다. 또 집에서

작성한 유언장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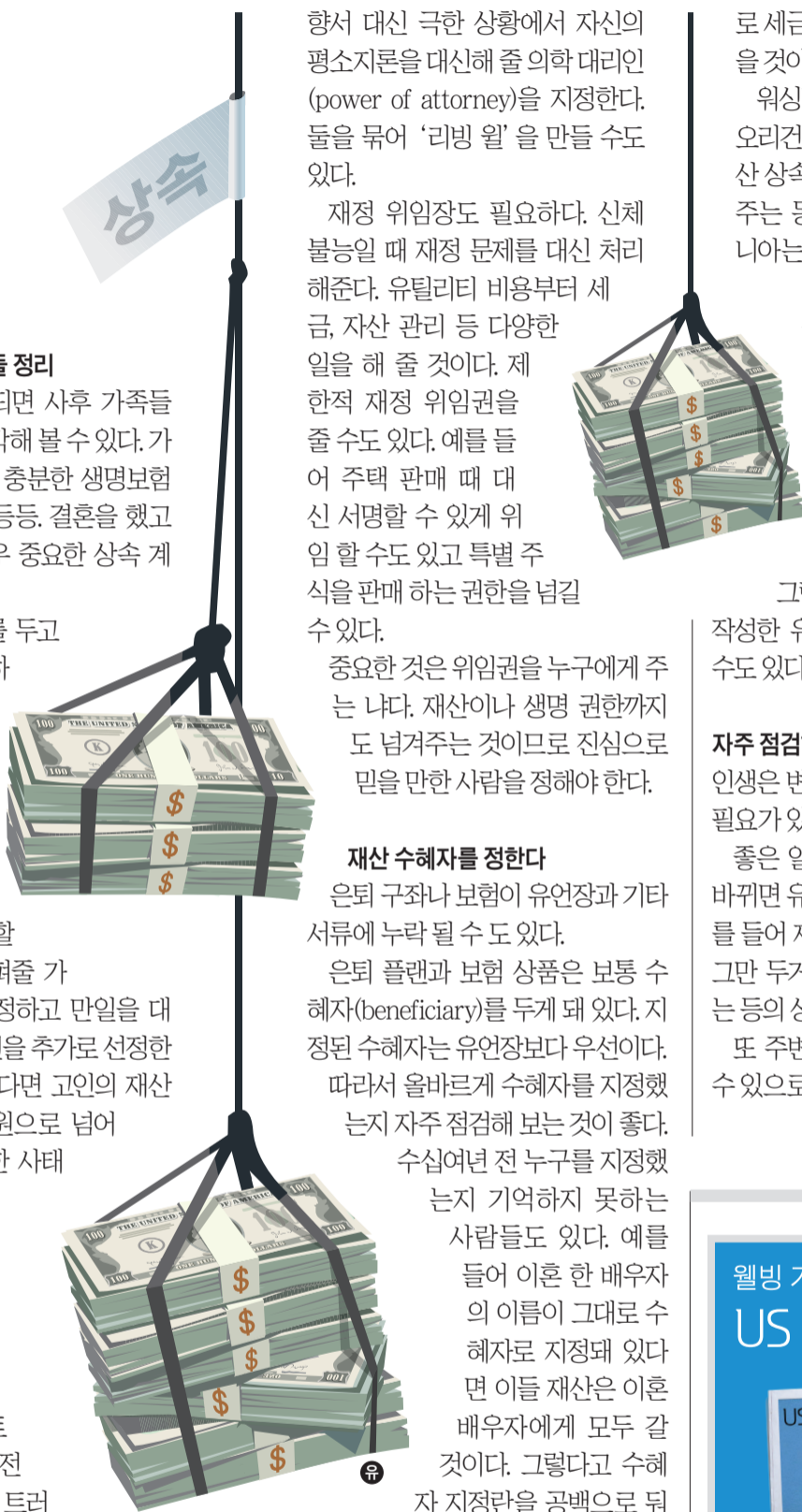
### 자주 점검한다

인생은 변하게 돼 있다. 상속 계획도 바꿀 필요가 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변 상황이 바뀌면 유산 계획도 재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혼을 했거나 이혼, 또는 직장을 그만 두거나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등의 상황이 올 수 있다.

또 주변이 바뀌지 않더라도 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김정섭 기자



웰빙 가이드  
**US 메트로 뉴스**

US 메트로 뉴스 4월 4일

**특별한**  
월간 프리미엄 웰빙가이드

고품격 월간 웰빙가이드 US METRO NEWS가 매월 첫째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US METRO NEWS'는 최고급 웰빙 기사를 기대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제작되는 월간 웰빙 가이드입니다.

광고·구독·배달  
**(323)620-6717**

# 장기 간병이 필요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해야

## 집에서 요양할까 시설에서 살아야 하나 현재 65세 장기 간병비 13만8,000달러 필요

부모가 장기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자녀들이 많다. 자녀들에게 이런 고민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 두는 한인들은 많지 않다.

장기 간병이라고 해서 꼭 양로원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활 보조 시절로 이주하거나 집에서 장기 간병을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뉴욕 소재 노인 건강 보험 플랜인 리버스프링 헬스의 다니엘 레인골드 회장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장기 간병 시설에 대한 지식이

그럼과 보험에서 지불해 준다. 또 평균 양로원의 독방 생활비는 연 9만 달러 이상이다.

### 집에서 간병하기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부분 사람은 오랫동안 집에서 머물며 간병을 받고 싶어 한다. 물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또는 돈을 주고 가정 방문 간병인이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이다.

집에서 요양을 하려면 경사를 만들고 손잡이를 곳곳에 설치하는 등의 개축 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비용은 건강 보험과 메디케어에서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 கே워스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인 홈케어비용은 월 4,290달러다.

전문 의료인과 케어기버가 필요한 홈헬스 케어비용은 더 높아 월평균 4,385달러다. 홈헬스케어

별로 없다면 “노화다”면서 “노화는 천천히 진행되지만 장기 간병은 갑자기 찾아오는데 이때 결정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넘어지거나 기억에 문제가 생겨 이웃을 배회하기 시작하는 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보건 후생서비스부에 따르면 현재 65세 미국인들의 절반은 앞으로 장기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이고 7명당 1명은 5년 이내에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노화는 항상 예상된 현상이므로 최소한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따른다. 보건후생부는 오늘 65세가 되는 사람은 평균 장기 간병 비용으로 13만8,000달러를 사용할 것이고 이중 절반은 가족들이 조달하고 나머지는 메디케이드 등 공공 지원 프로

그램과 보험에서 지불해 준다. 또 평균 양로원의 독방 생활비는 연 9만 달러 이상이다.

홈케어 비용은 주별로 또는 도시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의 경우 인 홈케어 비용은 평균 3,218달러로 전국 평균치보다 1,000달러를 저렴하다. 하지만 워싱턴의 경우는 동일한 서비스에 월 5,720달러가 필요하다.

### 독립 생활 시설(INDEPENDENT LIVING)

독립 생활 시설은 입주자 간의 사회 생활

을 도와주는데 초점을 맞춘다. 가능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입주자들 간의 교류와 활동도 가능하다.

집 청소와 음식 조리과 같이 귀찮은 일들을 도움받을 수 있다.

비용은 주마다 또는 거주지의 종류와 규모(스튜디오부터 2베드룸까지)에 따라 다르고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어떤 시설은 월 비용에 음식과 세탁, 집안청소, 교통비를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아예 별도로 받는 곳도 있다.

그런데 많은 독립 생활 시설들은 비용 공개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월 평균 1,000달러에 서부터

1만 달러까지 다양하다. 또 일부 시설은 1회에 한해 500~1,500달러의 입회비를 받기도 한다.

### 요양시설(ASSISTED LIVING)

옷입기, 화장실 가기, 약 챙기기 등 독립 생활이 어려워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시설이다. 독립 생활을 보장하지만 누군가가 항상 지켜보며 상태를 모니터링해준다.

이런 시설 대부분은 알츠하이머와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기억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케워스 보험사의 2018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비용은 월 평균 4,000달러로 매우 비싸다. 여기에 기억관리 서비스까지 받



는다면 월 1,000~4,000달러가 추가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방값이나 개인 서비스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비용만 커버해 준다.

### 요양원(NURSING HOMES)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한 사람들을 24시간 케어 해 주는 시설이다.

요양시설(assisted living)은 주정부가 부분적으로 관리하지만 요양원은 연방정부에서 직접 통제한다. 따라서 다른 재산이 다 소진되면 메디케이드(메디칼)에서 상당부분 입원비용을 지원해 주므로 매우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요양원 비용은 각 주별, 또는 도시별로 천차만별이다.

미국 평균 비용은 독방의 경우 하루 290달러이고 연 10만5,800달러다. 2인 1실은 255달러이고 연 9만3,075달러다. 가장 싼 주는 텍사스 시골의 175달러(독방)부터 알래스카의 1,100달러까지 다양하다.

지역별로 예를 든다면 캘리포니아 주 평균은 독방 376달러, 2인 1실 348달러이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독방이 무려 500달러(2인 1실 410달러)로 가장 비싸다. 반면 LA는 주 평균보다 낮은 독방 348달러, 2인 1실은 265달러로 낮은 편이다.

일리노이 주 평균 독방은 231달러, 2인 1실은 205달러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지만 시카고는 대도시답게 독방 281달러, 2인 1실 266달러로 나타났다.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의 케슬 교수는 요양원 선택은 자동차 구입보다 더 복잡하다면서 사전에 시설을 방문해 점검해보고 숨겨져 있는 비용이 있는지 꼼꼼히 따지라고 조언했다. 물론 결정을 내릴 때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존김기자

# 미 전국 거래 주택 43% 웃돈 주고 판매

**63%는 '깜깜이' 주택 매매 새 트렌드**  
투자금 유입, 저리, 공급 부족 심화  
리스팅 수분만에 온라인 투어, 오피까지

주택 시장이 뜨겁다. 뜨겁다 못해 데일 지경이다. 매물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 투자 그룹들의 가세로 매물난이 가속되고 있다. LA타임스는 남가주 사례를 들어 전국에서 부는 부동산 붐을 상세히 소개했다.

**순식간에 39개 오피**

남가주 터스틴 북쪽의 2,092 스퀘어 피트 주택이 목요일 매물로 나왔다. 4베드룸에 가격은 110만달러. 팬더믹 이전이었다면 오피하우스에 10여명의 바이어들이 집안을 구경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예약자에 한해서만 둘러볼 수 있다.

빅(39)과 사라 제미라이 부부는 토요일 30분 투어를 마쳤다. 밖에는 또다른 바이어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셀러측에 이전트는 수일내 멀티 오피가 들어올 것이라며 오피를 종용했다. 이들 부부는 주택이 마음에 들었지만 웃돈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이 집은 15만달러나 더 높은 가격에 팔렸다.

전국 주택이 순식간에 팔리면서 바이어들은 평생 가장 큰 투자가 될 수 있는 주택 구입을 찰나의 순간에 결정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 협회의 조사가 시작된 최소 30년 이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팔려 나가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장에 나온 주택 판매 기간의 중앙치는 8일이다. 부동산 버블이 심했던 2003~2005년에도 20일이나 됐다. 팬더믹 이전 핫 마켓이던 2017년에는 14일이었다.

최저 수준의 모기지 이자율, 아파트 보다는 큰 공간을 원하는 실 수요자들, 여기에 투자세력의 유입, 그리고 온라인 판매까지 가세되면서 판매 속도에 불을 지폈다.

전문가들은 요즘의 현상은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팬더믹으로 인한 실직 현상은 주택구입 능력을 가진 고소득 직종에게는 만나라 이야기다. 오히려 이들의 수입은 늘어나 더 큰 집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또 밀레니얼 세대(81~96년생)가 첫 주택 구입의 중심이 되는 30대에 진입하고 있다.

주택을 더 빠르게 구입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도 일조하고 있다. 팬더믹으로 주



택의 녹화 또는 라이브 비디오 투어가 직접 매물을 보지 않고 더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게 만든다.

2000년대 초반 버블때와 비교해 질로와 레드핀 같은 웹사이트 리스팅이 요즘은 일반화돼 마켓에 나오자마자 수분내에 집을 볼 수 있고 온라인으로 오피까지 내는 시절이 됐다.

**모든 기록 경신 중**

모든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구입자의 63%가 집을 보지도 않고 구입했다. 또 지난 4월 11일 이전 4주동안 판매된 주택의 43%가 리스팅 가격보다 더 높게 판매됐다. 최소한

조건부 오피까지 포기하고 있다.

**투자 세력의 현금 거래 증가**

현금을 들고 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이 때문에 많은 셀러들이 용자를 기다릴 필요 없는 현금 투자자들의 오피를 받아들인다.

어바인의 컨설팅 회사인 '존 번슨 부동산 컨설팅'은 국제 투자 시장의 낮은 투자 수익으로 인해 펀션 펀드, 개인 투자 그룹, 기타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미 전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살집을 찾는 전통 바이어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LA카운티의 경우, 2020년 4/4분기 3개월동안 투자 세력의 주택 시장 점유율은 20%로 전년 동기 대비 21%에서 1% 감소했다. 그러나 주택 구입 수를 비교한다면 동기간 중 두자리 수 증가세를 보였다.

**공급 부족**

공급이 부족하다. 질로의 자료에 따르면 LA와 오렌지카운티에 지난 3월 나온 주택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거의 9% 하락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캘리포니아 마켓 매물은 부동산 버블로 뜨거웠던 2004년 3월에 비해 무려 67% 줄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 소유자들이 코비드-19에 대한 우려로 매물로 내놓기는 꺼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주를 원하는 소유주들조차도 매물 부족으로 구입 주택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주택 신규 착공도 쉽지가 않다. 해변 지역의 건축 허가 받기도 어려운데다가 목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가 미뤄지고 있다.

요즘은 마켓에 나오기 전 바이어에게 보여주지도 않은 주택들도 날개 돋친 듯 팔린다. 지난 22일 레드핀 사이트에는 LA 카운티에만 349개의 '커밍 순' 리스팅이 올라와 있다.

팬더믹으로 주택 시장 판매 속도가 정점에 도달한다고 해도 앞으로 투자금 유입과 보지도 않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전통 바이어들이 빠른 주택 판매라는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영원히 굳혀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정섭기자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사우스베이 부동산 에이전트 개리스 컴스탁은 허손의 3베드룸 하우스가 매물로 나온 지 6일만에 리스팅 가격보다 11만 6,000달러 높은 가격에 판매됐고 오피만도 39개였으며 요즘의 분위기를 전했다.

남가주의 경우 주택 가격 중간 값은 8개월 연속 두자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많은 바이어들이 주택에 하자가 발견되면 벌금 없이 거래를 깬다는

## 5월 중순부터 어린이 백신 가능할 것

FDA, 12~15세 화이자 백신 긴급승인 예정  
6~11세 연말부터 접종, 나이별 양 조절 관건

미국인 16세 성인 거의 45%가 1차 접종을, 33%는 2차 접종을 모두 마쳤다. 그렇다면 수업 재개로 학교에 가고 있는 어린이들은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본격적인 다음 학기 개강에 앞선 8월까지 12~17세 연령대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은 예전의 백신과는 다르다. 현재 백신은 mRNA 계열로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는 새

로운 백신이다.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사망률이 높은 나이 든 성인을 시작으로 점차 젊은 연령대와 임신부,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들 순으로 옮겨가며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화이자도 이미 12~15세 연령대의 참가자들을 상대로 3차 임상 실험(대규모 인원을 상대로 한 실험)을 마쳤고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FDA에 제출해 긴급 신청을 신청했다. FDA는 5월 둘째 주 이를 승인할 것으로 보여 5월부터 본격적인 어린이

접종이 시작된다.

또 모더나 역시 12~17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두 회사 모두 6개월~11세를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다른 두 백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존슨&존슨 1회 백신의 안전성은 이미 어린이 대상 실험에 돌입해 조만간 결과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임상 실험을 통해 어린이 연령대별로 항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지는지를 주의롭게 관찰하고 있다면서 결과에 따라 백신 양 등의 결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들은 성인과 달리 신체가 약물과 백신에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언제쯤 어린이 백신 접종이 가능할까**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FDA는 화이자의 12~15세 백신 긴급 사용 요청을 심의, 5월 둘째 주 승인 예정이다. 8월까지 원하는 부모들에 한해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연구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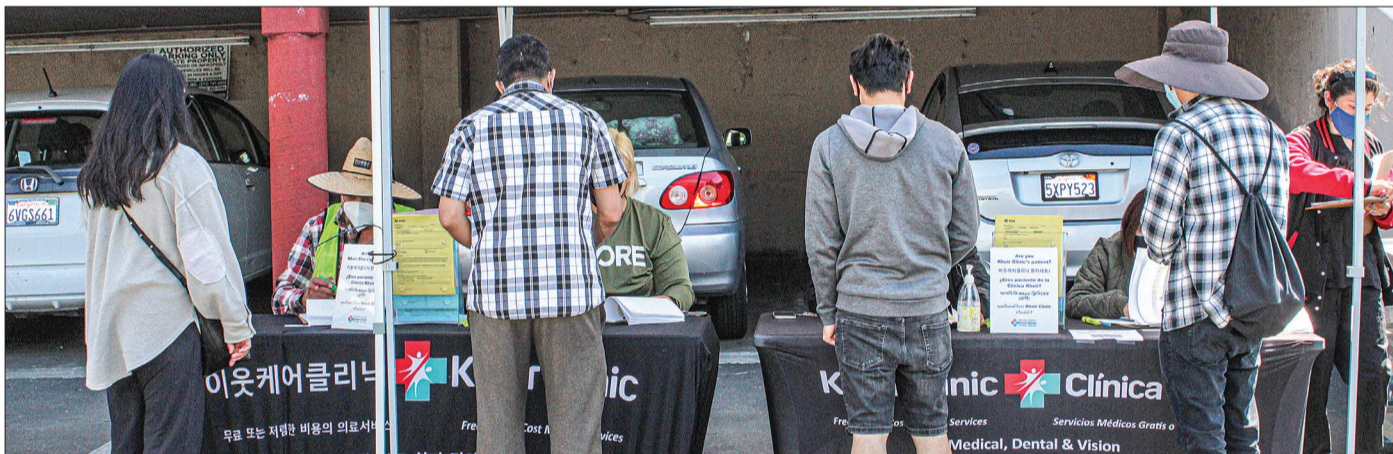
6~12세는 올해 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6개월 이상에 대한 백신은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임산부와 신생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임신부와 수유 여성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모유 수유를 통해 엄마의 항체가 유아에게 전달될 수 있어 6개월 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유아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가 증명해 주고 있다.

**백신 맞은 어린이는 전염 막아**

어린이 백신이 개발되면 가을 학기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일부 교육구는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백신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이를 의무화 해 반발을 사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아주는데 매우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전문가들은 부모들의 자녀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LA 이웃케어클리닉이 지난달 실시한 백신 접종 현장에 예약자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제공

## 미국행 비행기 탑승 전 반드시 음성 확인

**대중 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도 늘어나고 야외 마스크 가이드 라인이 완화되고 있는데 여행을 다녀도 될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CDC는 이에 대해 완전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코비드 19으로 불리는

SARS-CoV-2에 걸리거나 전염시킬 가능성이 낮아 미국내 여행을 해도 감염 위험이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선 여행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으로 여행 목적지의 상황을 주시하라고 조언했다.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비

행기 내부, 버스 등 대중 교통 수단 이용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했다.

**▶국내 여행**

접종을 마친 여행객들은 지방정부나 주정부, 지역 보건당국이 요구하지 않는 한 여행 전후 코비드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을

프리미엄 news  
wellbeingsus.com

필요는 없다. 또 국내 여행 때 자가격리도 필요치 않다.

**▶해외 여행**

접종을 마쳤다면 여행 국가가 요구하지 않는 한 여행 전 코비드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접종을 마친 미국 시민권자라도 미국에 돌아올 때는 비행기 탑승 전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완치됐어도 완치서류를 제시해야만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이 가능하다.

또 미국에 도착한 국제선 여행객들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도착 3~5일후 코비드 19 테스트를 받도록 CDC는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접종을 마친 여행객은 해외 여행을 다녀왔어도 자가 격리는 필요 없다.

## 뉴욕, 7월 1일 전면 오픈 목표

**Cover story** 1면에서 계속

또 그동안 등교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던 각 지역 교육구는 4월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많은 교육구의 학생 등교율이 아직 50%를 넘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코비드의 진앙지였던 뉴욕은 7월 1일 완전 개방을 목표로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디즈니랜드는 지난달 말부터 예약자에 한해 개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독립 기념일까지 미국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도 등 제3국의 팬데믹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치 않다면서 아직 긴장을 풀기는 이르다고 경고했다.

# 마스크 없이 야외 운동 가능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을 완화한 가운데 워싱턴DC를 찾은 관광객들이 마스크 없이 관광을 즐기고 있다. 뉴욕타임즈

## 접종 장소 관계없이 2차 접종 가능

1차 접종을 맞고도 2차 접종을 받지 않은 미국인들이 늘어나자 연방 정부가 대안책을 발표했다.

2차 접종을 1차 접종과 다른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연방정부는 27일 거의 모든 약국과 마켓내 약국에 다른 곳에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도 2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1차 백신을 접종한 사람중 8%에 해당하는 500만명이 이상이 2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 일부는 1차 접종 후 후유증으로 2차를 받지 않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1차 접종 장소에 가지 못해 2차 접종을 취소하는 경우다.

CDC의 이 같은 지침은 특히 대학에서 또는 대학 인근에서 1차 접종을 받은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맞아 집 근처에서 2차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CVS나 월그린 체인은 이미 장소에 관계 없이 2차 접종을 제공하고 있다.

## CDC 마스크 착용 기준 완화

연방정부가 코디드 19 팬더믹을 선포한지 1년 1개월여만에 마스크 착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7일 상대적으로 안전한 야외 운동 때는 더 이상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다며 완화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계속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때.

▶야외에서 혼자 또는 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과 함께 걷기, 달리기, 등산 또는 자전거 타기를 할 때. ▶모든 백신을 맞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야외에서 작은 모임을 가질 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때

▶접종을 마친 사람과 접촉 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야외에서 작은 모임을 가질 때. ▶다른 집에 사는 여러 명과 야외 식당에서 식사할 때이다. 특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모임을 가질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할 때는

▶퍼레이드 참가, 운동 경기, 또는 공연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행사에 참가할 때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집안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의 모든 실내 모임때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당내 식사, 영화 관람, 실내 공연 또는 연극공연, 교회당 예배, 비행기 여행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실내 합창, 실내 운동 교실, 사탕물 또는 박물관 방문, 미용 또는 네일 서비스 시설 이용, 실내 모임 참석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런 모든 활동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훨씬 안전하긴 하지만 자신이나 남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CDC는 권고했다.

CDC는 특히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지에 대해 아직 알려진 바 없으면서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반드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 미국내 기승 변종 4종

현재 미국에서 유행하는 변종 바이러스는 총 4가지라고 CDC가 밝혔다.

▶영국에서 발견된 B.1.1.7

현재 111개국에서 발견됐다. 미국에서는 2만 건이 보고됐으며 미시간 케이스의 57%를 차지한다. 감염 속도는 30~50% 빠르며 중증을 유발한다.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효과적으로 방어한다.

▶사우스아프리카 B.1.351

지난해 10월 발현돼 미국 등 70개국으로 퍼졌다. 미국 36개주 453건이 보고됐으며 50%의 빠른 전파력을 가진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으로 생성된 항체가 방어하지 못하지만 존슨&존슨 백신은 임상실험에서 64%의 효과를 보였다.

▶브라질발 P.1

일본에서 브라질을 다녀온 4명이 1월 감염됐다. 현재 36개국으로 확산됐고 미국에는 497건이 보고됐다. 변종이 발생해 재 감염 사례도 보고됐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를 보고 있으나 모더나는 아직 실험하지 않았다. 존슨&존슨 백신은 임상 실험에서 68%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

▶캘리포니아 변종 B.1.427/B.1.429

CAL.20C로도 불린다.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돼 현재 호주, 덴마크, 멕시코, 타이완에서도 검출됐다.

## 연말 변종 부스터 백신 시작 될 듯

### 12개월 내 3차 접종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해도 변종에 대비하고 항체의 지속을 위한 또 한차례의 백신 접종이 조만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는 지난 15일 코비드 19 백신 2회 접종을 마쳤다고 해도 12개월 내에 3

차 접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더나도 연말부터 미국에서 코비드 19 백신 부스터 샷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백신의 부스터 샷은 변종과 항체의 지속력 유지를 위해서다. 화이자는 아마도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존슨&존슨 역시 지난 2월 독감

예방주사와 같이 매년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아직 백신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모른다.

텍사스 가정 주치의 질 그림스 박사는 "어떤 백신은 10년에 한번씩 부스터 샷을 맞지만 독감은 매년 맞아야 한다"면서 "코비드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와 유사한 변종 출현으로 매년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3-PLY DISPOSABLE MASKS

최고의 재료, 인체에 맞는 맞춤형 마스크  
착용감 좋고 얼굴 부위에 잘 달라붙는 마스크



뜨는 공간 없어  
바이러스 유입  
철저히 차단



순수 미국 생산품



## IRS, “마스크 구입비 세금 공제 가능”

### 바이러스 예방 위한 개인 장비 구입시

지난해 가장 인기 상품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물품을 꼽으라면 단연 마스크와 손 세정제였을 것이다. 팬더믹으로 재택령이 떨어졌던 3월 15일 이후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일찌감치 품절 품목으로 마켓에 나올 때마다 서둘러 쇼핑카트에 담았던 경험은 한 번씩 다 있었을 것이다.

IRS가 지난해 이런 사정을 헤아리는 조치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마스크와 손 세정제, 그리고 개인 안전을 위한 기타 보호장비를 구입했다면 2020년 세금 보고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S는 공지문을 통해 “마스크와 손 세정제, 세정용 휴지와 같은 개인 보호장비를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의료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항목별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의료비용이 조정 후 총수입(AGI)의 7.9%를 넘어야 한다.

IRS는 2020년 세금 보고 때 항목별 공제를 받는 납세자는 10% 미만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표준 공제를 대폭 늘리면서 항목별 공제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기업·교회 등 단체주문 환영 \*\*

1420 ESPERANZA STREET LOS ANGELES, CA 90023

# (323)262.0098



# 암 생존해도 후속 조치 없으면 재발 가능성 높아

요즘 의학의 발달로 암 생존율이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방암 5년 이상 생존율은 무려 90%를 넘는다. 하지만 암 생존자들에게는 치료 후 완치가 끝은 아니다. 치료에 따른 후유증 극복,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 검진, 그리고 어려운 치료를 받은 후의 정신적 고통을 떨쳐 내는 후속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거의 40%는 전이성 암에 걸리며 남성은 걸릴 확률이 여성보다 조금 높다. 하지만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의학 발달로 미국에서는 2019년 1월까지 1,700만 명이 암을 극복하고 살아남았다. 이 수치는 2030년까지 2,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치료에 따른 후유증

암 생존자들은 방사선 치료로 인해 심장과 기타 장기 손상 또는 혈압과 당뇨병의 악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피로감을 경험하고 암이 재발할 것이라는 끊임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힌다. 성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영향을 미친다.

비영리 전국 암 생존자 연합은 앞으로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치료 후 어떤 후유증이 올 것인지를 인식하는 생존자들은 거의 없으면서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치료했던 암 전문의는 새 암 치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일반 주치의 역시 이런 분야에 익숙지 않아 지속적인 후속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18세에 육종으로 암 치료를 받았던 말리사 빅커스(26)는 “치료를 받을 때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항상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해 주기 때문에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생존 후에는 ‘나는 다음에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고 전했다. 그녀는 불임이 우려됐지만, 지금은 쌍둥이를 낳아 잘 키우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의료계가 암 생존자의 후속 관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완치 환자들이 퇴원 후 스스로 알아서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치료 자체의 변화

무엇보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독성이 적고 후유증과 재발의 위험성을 줄이는 치

## 장기 손상 등 지병 악화 암 재발 공포 극복해야

남성과 여성 40%는  
전이성 암에 걸려

의학 발달로 1,700만 명  
암 극복, 후유증도 심해

료 방법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요법과 방사선은 호킨 림프마(호킨림프종)의 기본적 치료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방사선이 새로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기타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화학요법만 가지고도 특정 환자의 전체적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의사들은 방사선 치료를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고 화학요법 치료에 의존하고 있다.

또 양성자 치료 요법이 유방암 치료에 효과를 보이면서 양성자 치료가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 양성자 치료가 완치 후 심장 질환 후유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물 유전학 분야에서도 유전적 변이를 근거로 개별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를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약물이 어떤 후유증을 유발하는지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신규 면역요법 약물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 암세포를 발견 제거해 일부 암에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장



기적인 효과나 재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 특별 치료 제공

암은 종류 만큼 치료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래서 암 생존자들의 후속 조치도 개별 맞춤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생존자들은 전문의의 집중 관리를 받으며 재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또 치료에 특정한 화학요법과 방사선 노출에 따른 후유증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특정 암형태를 다룰 수 있게 훈련된 간병인을 생존자들과 연결해 주며 후속 조치를 해주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

## 생존율 증가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암 생존자 프로그램을 설립한 린다 제이콥스 교수는 이 같은 후속 조치가 없다면 “장기 암 생존자가 후속 치료를 소홀히 할 것이고 수년 이내에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암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예로, 30년 전 뇌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한 환자가 일반의로부터 재발

성 감염으로 판단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기 방사선 노출에 의한 부비동 종양임이 밝혀졌다.

제이콥 교수는 암 임상 간호사가 머리 CT 촬영과 MRI를 지시해 종양이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럿저 대학의 법학과 교수인 데니스 패터슨은 2001년 고환암 치료를 받았다. 고환암 환자들은 재발 위험이 높고 치료에 따른 장기 후유증과 새 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 제이콥 박사는 “암 전문의들이 혈액 검사나 기타 검사를 통해 아주 미세한 변화도 감지한다”면서 “암 전문의의 진료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패터슨 교수는 그로부터 8년 후 그의 암 전문의가 비장이 커져 있음을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의뢰한 결과, 희귀 림프종임을 알게 됐다. 그는 면역 요법 약물치료를 받고 비장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최근 2년 전 패터슨 교수는 후속 진료를 통해 PSA(전립선 항원 수치)가 점차 증가한 것이 확인돼 추가 조사를 통해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다. 패터슨 박사(65)는 “6개월마다 암 전문의를 만나고 주치의의 진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18면에 계속

# 여성은 피하지방, 남성은 내장지방

## 내장지방 많으면 심장병 위험 높아져

여성은 왜 남성보다 오래 살까. 여성들은 19세기 중반이후부터 남성 수명을 앞지르고 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질문에 웰스트리트 저널이 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대답을 내놓았다.

옥스퍼드 대학 옥스포드 마틴스쿨의 경제학자 에스테반 오티즈-오스피나는 지구촌 인간 사망 통계를 포함해 다양한 자료를 모아 분석해 봤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1880~2015년 미국 남성의 기대 수명치는 47세에서 77세로 무려 67%가 늘어났다. 그런데 여성의 기대 수명치는 48세에

서 82세로 71%나 증가했다.

그러면 여성의 기대수명치는 왜 남성보다 더 늘어났을까. 결론은 의학의 발달이라는 분석이다.

20세기 초반까지 전염병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 모두 수명이 줄어들었다. 수명의 단축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심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바이러스 성 독감과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았고 특히 출산 중 사망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오티즈-오스피나 박사는 “이후 수십여 년동안 의학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감염병이나 난산으로 인한 사망이 매우 줄어들었다”면서 “이로인해 여성들의 수명이 남성보다 앞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 여성과 남성의 기

대수명치 간격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1970년대만 해도 45세를 넘긴 여성은 남성보다 6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4년에는 그 격차가 4년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이 여성과 남성의 수명 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1970년대 이후부터 흡연률이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티즈-오스피나 박사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담배피는 남성 숫자는 당시보다 훨씬 줄어들어 든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남성과 여성과의 크로모솨(염색체)와 호르몬 차이도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남성들은 장기 주변에 더 많은 지방(내장지방)이 쌓이는 반면, 여성은 피하에 지

방이 더 많이 몰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장에 지방이 쌓이면 심장 질환을 유발하게 되므로 남성들이 여성보다 심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다.

그런데 오티즈-오스피나 박사가 해석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분명 여성들의 사망률은 남성보다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건강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근 여러건의 연구서를 살펴보면 의사 진료도 자주 받고 병원 입원 기간도 남성보다 더 길다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사망률은 남성이 더 높는데 여성은 남성보다도 질병에 자주 시달린다는 말이다.

오티즈-오스피나 박사는 아마도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질병을 더 잘 이겨내거나 아니면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집에서 검사하는 코비드 검사기 시판

### 개당 23달러~38달러 4개 종류

집에서 15분만에 간단히 코비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 키트가 시판되고 있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고 검사기를 실험실로 보내지 않고도 간단히 검사할 수 있는 간이 기구다.

현재 CVS, 월그린,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검사기는 ‘바이넥스나우’ (BinaxNow)로 온라인 구입비는 23.99달러이며 배송료는 별도 부담이다. 내용물은 용액, 검사 카드, 면봉으로 구성된다.

이 제품은 간단한 임신 검사기와 유사하다. 사용 방법은 검사기 위 구멍에 6방울의 용액을 떨어 뜨린 후 면봉으로 양쪽 코의 내부를 5차례 문질러 샘플을 채취한다. 카드를 열어 구멍에 샘플이 묻은 면봉을 3회 문지른 후 15분 후 기다리면 양성 또는 음성 여부가 임신 테스트처럼 줄로 표시된다. 검사기를 제작한 ‘애버트 랩’은 95%의 신뢰도로 앨리지 증상인지 코비드-19 증상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검사기에는 36시간 후 재검사를 할 수 있는 추가 검사기가 포함된다.



CVS, 월그린,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코비드 테스트 키트 ‘바이넥스나우’ 제품.

이외에도 FDA 긴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퀴델(Quidel)과 퀵뷰(QuickVue)도 5월초부터 개당 30달러에 시판되며 또

른 제품 엘룸(Elume)도 5월말부터 온라인과 시중에서 개당 38.99달러에 판매될 예정이다.

## 소아암 생존자 평생 건강 관리 신경 써야

### 암치료 후유증 관리 17면에서 계속

#### 젊은 생존자에 초점

소아암 생존자들은 예전보다 많아지기는 했지만, 성인들보다 더 관리가 복잡하다. 전국 암연구소에 따르면 의학의 발달로 소아암의 5년 생존율이 83%로 크게 향상됐다. 1970년대 중반만 해도 58% 생존율을 보였다.

하지만 암 치료가 어린이들의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고 성장 장애와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고 암 재발로 이어지곤 한다.

따라서 생존자들은 평생 후속 관리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생존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처음 치료했던 의사가 이미 죽었거나 멀리 이주해 암치료 의료기록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

텍사스 어린이 암 센터에서 암 치료 정보를 담은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개발한 데이비드 폼렉 박사는 “치료를 받은 지 오래됐고 치료했던 의사도 찾을 수 없다고 해도 어린 시절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문제와 필요한 중요한 감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

했다. 텍사스뿐 아니라 UC 샌프란시스코 어린이 병원도 어린이 암 생존자에 대한 후속 관리에 주력하는 등 미국 내 많은 어린이 병원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정신적 지원

암 생존자에 대한 정신적 정서적 치료 역시 무관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생존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부담을 관리해주는 단체와 프로그램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 생존자들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과 치료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2012년 3곳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테레사 샬스맨은 거의 1년 동안 양측성 유방 절제, 림프절 제거 수술, 화학요법과 방사

선 치료를 받았다. 계속되는 수술의 고통에 더해 갑작스레 찾아온 어깨 회전 건관 손상, 상체 근육 경련, 팔과 가슴 아래 조직 경직 등의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샬스맨은 “생존의 기쁨에 즐거워한다고 해도 수년 동안 계속되는 치료 후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록아일랜드에 사는 샬스맨은 집 근처 ‘길다스 클럽 퀴드 시티’의 ‘암 전환’ 프로그램에 등록해 다른 암 생존자들의 조언을 듣고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요가와 명상, 음악, 미술 클래스를 택해 유방암 치료 후 근육 경직 등의 후유증을 나름대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 직원 수·급여 줄여 보험료 낮췄다가 '큰 코' 다친다

**종업원 상해보험, 텍사스 제외 모든 지역에서 의무화  
근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상  
보험료 비싸 편법 가입했다가 고발 사례 많아**

불행한 일이지만 어느 직장에서도 근무 중 다치는 종업원이 있게 마련이다. 이를 때를 대비한 보험이 '웍컴' (workers' comp) 이라고 불리는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이다.

'웍컴' 은 근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종업원을 보상해 주는 동시에 업주의 재정적 손실을 막아준다. 보험이 없다면 부상을 당한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업주는 상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 특히 노동 직종의 보험료는 매우 비싸다. 이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거나 종업원들의 수를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고발당하는 업주들이 적지 않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사무직의 보험료는 급여 100달러당 0.40 달러이지만 사고 위험이 높은 노동직은 최고 33.57달러다. 일리노이 역시 0.11달러에서 많게는 37.24달러로 비싸다.

지난달 6일 7개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된 LA의 마리온 피기 주니어(68)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는 양로시설 '센터 포 비해비오럴 체인지' 를 운영하면서 7년간 종업원 급여 600만 달러를 줄여서 신고해 100만 달러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혐의다.

보험국은 2014년 11월부터 다음 해 1년 동안의 정기 감사를 하던 중, 업주가 1명의 종업원과 연 급여 8,035달러만 신고한 것을 발견했다. 실제 이 업주는 8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1년간 지급된 급여도 88만 1,593달러에 달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종업원 60명의 급여 598만2,140달러를 보고하지 않아 보험금 백1만7,937달러를 내지 않았다고 보험국은 밝혔다.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상해보험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불해 주고 치료비와 재활비용을 보상해 준다. 특히 근무와 관련돼 사망한 종업원의 장례비용과 같은 사망 관련 비용도 제공한다.

이 때문에 텍사스를 제외한 미국내 주정부들이 업주들의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이나 임금 허위 보고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주별로 적용 범위나 보험료, 혜택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는 벌목 사업체가 많아 미국에서 가장 비싼 보험료를 책정하는 주 중 하나다. 벌목 사업에 대한 부상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각 주마다 직접 보험을 판매하기도 하고 일반 보험회사와 연계해 판매하기도 한다. 또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사업체 자체내에서 기금을 만들어 상해 발생시 종업원들에게 보상해주는 자체 보험도 허용해 준다. 하지만 모두 주정부의 철저한 감독하에 운영된다.

어떤 주는 업주들이 상해보험을 클레임했던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2차 부상 기금을 운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년전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 허리를 다쳐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한 적이 있는 전직 간호사를 조선소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허리 부상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 재발한다고 해도 주정부의 2차 부상 기금으로 그 비용을 커버해 준다. 이런 기금이 없다면 부상 전력이 있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는 직장은 없을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타주에 출장을 가서 발생하는 재해에서 대해서는 커버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을 잘 알아 두어야 한다.

**주별로 규정 차이**

텍사스를 제외한 모든 주들은 사업주들에게 반드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또 일부 주는 일정 종업원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게만 강제한다.

그런데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커미션을 받는 직원, 부동산 및 보험 판매 종사자, 고용주의 가족, 파트타임 근로자, 자원봉사자, 음식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 등은 상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직장에서 일하는 견습생 포함 모든 직원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 계약의 유무에 관계없으며 합법, 불법 고용과도 무관하다. 모든 근로자가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와 배우자는 가입할 필요는 없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커버해주는 부상**

종업원이 직장에서 근무중 다쳤다면 종업원 상해보험이 보상해 준다.

예를 들어 직원이 고객에게 배달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다쳤어도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의료비용을 지불해 준다. 또 근무와 관련된 폭력, 테러, 자연재해로 인한 부상도 보상된다.

종업원 상해보험 지불 사례 중 30%가량은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다. 무거운 물건을 집어 올리는 경우 이런 부상이 발생하곤 한다. 대부분 12일 정도 지나면 부상이 완쾌돼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주로 노동이나 하역, 야적, 운반, 간호보조 직종에서 많이 발생한다.

두번째로 많은 부상이 낙상이나 미끄러짐 또는 헛디딤으로 상해 크레임의 27%를 차지한다. 종업원 상해는 꼭 부상만 해당되지 않는다. 근무중 화학약품 노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커버 대상이 아닌 부상**

커버 대상도 주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원이 시작한 싸움, 직원에 의한 고의 사고, 음주나 약물에 취한 종업원의 과실, 물리적 증상 없는 정서적 질병 또는 부상,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커버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주의 철저한 통제와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종업원이 사업주를 상대로 종과실, 악의, 차별, 진급 누락, 부당 해고등의 이유로 제기한 소송은 커버해 주지 않는다. 이런 소송은 고용 행위에 대한 책임 보험으로 소송 비용을 커버 받을 수 있다.

**종업원이 고용주 소송할 수 없어**

종업원 상해보험은 과실 책임자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시스템이다. 다시말해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종업원은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상을 받는 한 고용주를 소송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만약 고용주가 종업원을 상대로 폭행, 명예훼손, 사기, 정신적 고통을 가해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게 된다. 자넷김기자



이민희 제공

# 2년제 대학, 무상교육 실현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첫 연방 의회 합동 연설에서 대학 무상 교육과 보육 시설 지원등을 포함한 '패밀리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뒤쪽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뉴욕타임스 더그밀스 기자

## 취임 후 첫 연방의회 합동 연설 1조8,000억 '패밀리 플랜' 제시 부양책, 의회 통과는 미지수

지난 3월 1조9,000억대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무상 교육과 보육 지원 등을 포함한 1조8,000억 달러의 '패밀리 플랜'과 인프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조3,000억 규모의 '미국 일자리 플랜'을 제시했다. 바이든은 28일 취임 후 첫 연방의회 합동 연설에서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를 들고나왔다.

하지만 바이든의 이 같은 제안이 지난번 코비드 경기 부양책과 같이 의회를 쉽게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일부 중도 민주당 의원들이 부양책 규모와 세금 인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다가 진보 민주당 의원들은 처방 약값 인하 등 자신들의 중요 이슈들이 빠져 있는 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바이든의 패밀리 플랜

#### ◇자녀 양육 지원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은 5세 이하 자녀 양육비로 수입의 7% 이상 지출하지 않는다. 자격은 수입이 주별 중간값의 1.5배 이

하 가정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021년 중간 수입이 연 7만5,235달러이므로 연 수입 11만2,852달러 이하의 수입 가정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보육 시설 교사들의 시간당 임금을 2020년 평균 12.24달러에서 시간당 최고 15달러까지 끌어올린다.

####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에 1,09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연방 정부는 주별 평균 등록금의 75%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주 정부가 조달한다. 만약 모든 주 정부가 이 안에 동의한다면 약 550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프리미엄 news  
wellbeingsus.com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인 질 바이든 대통령 부인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적극 지지했었다. 당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지만 뉴욕, 로드 아일랜드, 오리건 등이 무상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작했다.

진보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4년제 공립 대학의 저소득층 학생들 무상 교육과 학자금 대출금 5만 달러 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은 1만 달러 탕감안을 선호한다. 바이든은 흑인 및 소수계 인

종 4년제 대학의 연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가정의 학생들에 대해 2년 등록금 보조를 제시했다.

#### ◇펠그랜트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는 펠그랜트를 최고 1,400달러까지 추가해 늘린다. 현재 유색인종이 대다수인 700만 명의 대학생들이 펠그랜트를 받지만 학비 인상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1~2022학년도 펠그랜트는 최고 6,495달러다.

#### ◇유급 가족 병가 확대

지난해 3월 통과된 팬데믹 구호법안의 골자 중 하나가 유급 가족 병가였다. 고용주는 감염자 또는 격리자의 2주 유급 병가와 팬데믹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병가 직원에게 10주간 유급병가를 제공했다. 지난해 12월 이 확대안이 소멸됐지만 연방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유급병가를 주는 고용주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바이든은 이를 10년간 12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월 4,000달러를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급여의 2/3를 고용주가 지급한다.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해당된다.

#### ◇2025년까지 차일드 택스 크레딧 연장

지난 3월 부양 안에 포함된 자녀 택스 크레딧을 4년 더 연장한다. 6세 이하 어린이 당 3,600달러, 6~17세는 3,000달러이다. 17세 미만 최고 2,000달러에서 올랐다. 크레딧은 개인 소득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세금 보고 15만 달러, 가장 수입 최고 11만 2,500달러 미만의 가정에 제공된다.

#### ◇오바마케어 보조금 영구화

바이든은 2년간 오바마케어 보조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연방 빈곤선 150%까지 보험료를 무료로 지원하며 400% 이상 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연 지불 한계를 8.5%로 제한해 정부에서 보조한다. 이를 영구화하겠다는 것이다.

#### ◇부자 증세

2017년 공화당의 감세법을 되돌려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늘린다. 미국 내 부자 1%에 해당하는 세율이다.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자본이득 세율을 늘린다.

현재 1년 이상 장기 투자의 경우 연방 자본이득세율은 20%다. 개인 연 20만 달러 소득(부부 25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자는 3.8%의 추가 세율을 지불해 오바마케어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 ◇부자들의 미실현이익(unrealized gain) 보호 철회

상속 재산은 구입 시 가격이 아니라 사망 때 가격으로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재산을 팔아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바이든은 개인 100만 달러, 부부 250만 달러 이상의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 운영 비즈니스와 농장은 계속 상속인이 운영하면 제외된다.

또 부동산 투자자도 5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이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31 익스체인지 자본이득세 유예를 철회한다.

## 주당 400달러 렌터카 대여비가 1,212달러

팬데믹으로 렌터카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대여비가 크게 뛰어올랐다. 대여 회사들이 지난해 경영난으로 상당수의 보유 차량을 처분해 보유 차량이 줄어든 데다가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여행객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휴가객들에 슬기로운 자동차 대여 방법을 소개했다.

지난 3월 31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텍사스 어스틴으로 이주하는 클레이 허버트가 렌터카 쇼핑을 나섰다.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그는 출장이 잦아 주당 400달러에 렌터카를 이용하곤 했다. 그런데 트리프트, 달러, 내셔널, 알라모 렌터카는 모두 품절이 됐고 그나마 허츠에서 찾은 소형 마즈다 승용차는 1주에 1,212달러나 했다.

요즘 렌터카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팬데믹으로 여행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렌터카 시장에도 한파가 닥친 것이다. 결국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렌터카를 상당 부분 처분했다.

마케팅 리서치 회사인 J.D. 파워의 시니어 여행 분석가 마이크 데일러는 “1년간 갇혀 있다가 이제 기지개를 켜고 휴가를 떠나기 위해 렌터카를 찾는 사람들에게 기아 승용차를 하루에 300달러 내야 한다는 사실이 절대 즐겁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 업계 분석 회사인 ‘테스티네이션 애널리스트’가 최근 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 이상이 앞으로 3개월 내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렌터카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행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대여 자동차를 저렴하게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하와이 같은 유명 관광지는 더욱 그렇다.

### 자동차들 어디로 갔나

렌터카를 찾아주는 플랫폼 ‘오토슬래시’가 처음 품귀 현상을 인지한 것은 지난 2월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였다. 플로리다 20개 공항 중 18개 공항에서 자동차가 모두 두 나간 것이다. 매우 드문 일이다.

‘오토슬래시’의 조나산 와인버그 대표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대폭 늘었지만 렌터카 회사들은 규모를 줄이면서 대여할 자동차가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2020년 에비스와 버젯 렌터카 회사인



### 대여 회사 보유 차량 줄고 여행객은 늘어나고

### 렌터카 품귀 현상 심해 일찌감치 예약 필수

### 호텔 인근 렌터카 이용하고 개인 승용차 대여

에비스 버젯 그룹은 매출이 전년 대비 40%가 줄어들자 보유 자동차 25만대를 팔아 버렸다. 허츠, 달러, 트리프트를 운영하는 허츠사 역시 지난해 5월 파산보호신청을 내면서 2020년 말까지 보유 차량의 40%를 처분했다. 허츠는 최근 자동차 구입을 위해 40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요즘 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을 위한 자동차 생산이 늦어지면서 허츠의 이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

인다.

엔터프라이스, 알라모, 내셔널을 운영하는 엔터프라이스 홀딩스도 특히 유명 관광지 수요증가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저렴한 렌터카 빌리기

슬기로운 렌터카 확보 전략은 미리 예약해 두는 것이다. 아마도 비행표 예약보다도 더 빨라야 할지 모른다. 전문 사이트 ‘카약’을 통해 보면 4월 말 호놀룰루 1주일 렌터카 비용이 700달러다. 2-3주 후에는 가격이 400달러를 떨어진다. 미리 예약을 한다면 절반 가격에도 빌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모든 곳이 렌터카 부족 현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하와이의 유명 리조트 지역에서는 흔하다. 하지만 공항 인근을 피하는 방법이 좋다.

허버트는 동네 인근 허츠에서 원하는 차량보다 더 큰 카고 밴만 빌릴 수 있었다. 그것도 주당 159달러에.

여행 관리 서비스 ‘사반티 트래블’을 만든 레이 로완은 “자동차 렌터카 검색 사이트에서 모든 차량이 나갔다고 한다면 전략을 바꾸라”고 조언했다. 그는 구글 지도를 이용해 호텔이나 휴가 숙소 인근의 렌터카 회사에서 찾아보라면서 “마우이의 웨일리와 같은 주요 관광지는 호텔 단지로부터 도보 거리의 자동차 대여점이 네군데 있다”고 소개했다.

로완은 하와이 관광을 위해 코스코를 통해 알라모에 예약을 했다. 코스코는 멤버들에게 렌터카와 같은 여행 할인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도착하기 하루 전 현지로 전화를 걸어 렌터카 예약을 재확인하고 도착 후 찾을 직원의 이름도 확인해 두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런 추가 연락이 귀찮겠지만 특히 하와이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와이 관광국은 지역 TV를 통해 하루 600달러 이상의 자동차 렌트비 청구 사례를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자동차를 빌릴 때는 렌터카 할인 코드나 쿠폰을 이용하고 AAA나 AARP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멤버들에게 예약한 렌터카 가격이 내려가면 고객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전통 렌터카 대체 수단

물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또는 공유 서비스 같은 대체 수단도 있다. 이런 것이 싫다면 자동차의 에어비앤비라고 불리는 ‘투로’ (Turo)를 이용하면 좋다. ‘투로’는 개인 자동차 대여 사이트로 하루 20달러의 소형 승용차부터 마이애미의 램프기니 같은 고급 승용차 1,000달러까지 알선해 준다. 보통 차주는 주행 거리 제한 같은 조건을 둔다.

또 RV 역시 공유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 소유 RV를 빌릴 수 있다. 물론 가격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말이다. RV 소유주들과 여행객을 연결해주는 ‘아웃도어시’ (Outdoorsy)는 2019년 하룻밤 대여비 121달러였지만 2020년에는 161달러로 올랐다. 2021년 2분기 렌터비용은 2019년에 비해 약 137% 올랐다.

RV 공유 사이트인 ‘RV셰어’ (RVshare)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 대여비가 지난해에 비해 벌써 50% 상승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대신 값싼 U-홀 트럭을 이용하는 여행객도 있다. 트럭 렌트 비용은 하루 19.95달러다.



페창가 저니 코스에서 열린 '캐릭터 미디어 프로-엠 골프대회'에 출전한 LPGA 선수들과 VIP 게스트들이 골프 대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페창가 제공

## 프로-엠 골프대회, 페창가 리조트에서 열려

이미향, 최운정 등 LPGA 프로 26명 대거 참가



페창가 리조트가 지난해 팬더믹으로 취소됐던 '캐릭터 미디어 연례 프로-엠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섰다.

'캐릭터 미디어 프로-엠 골프대회'는 유명 LPGA 골퍼들과 VIP 게스트를 초청한 연례 골프 대회로 8년째 테메큘라의 '페창가 저니 코스'에서 페창가 리조트 후원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해 팬더믹으로 취소돼 2년만에 개최된 올해 14회 대회는 지난달 5~6일 이미향, 앤젤 인, 브론테 로, 최운정, 박희영을 비롯한 26명의 LPGA 프

로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개최됐다.

대회가 열린 저니 코스는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의 프리미엄 골프 코스로 캘리포니아 최고의 퍼블릭 골프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페창가측은 골프장 바로 옆 리조트에서 럭셔리한 숙박과 함께 즐기는 골프는 다른 곳과 차원이 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877-711-2946 또는 웹사이트 [www.Pechanga.com](http://www.Pechanga.com).

###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페창가, 한인 고객 서비스 제공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의 골프 티 타임 우선 예약, 레스토랑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는 애나 트랜 아시안 마케팅 매니저가 이끄는 한인 호스트 팀을 통해 할 수 있다. 한인 호스트팀은 신디 안 수석 카지노 호스트가 맡고 있다.



애나 트랜

신디안

## 11월 할리웃서 K타운 국제 영화제 열린다

영화제 준비 위원회 공식 출범

오는 11월 13일 할리웃서 'K-타운 국제 영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기생충' '미나리' 등 영화사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한국 영화의 국제적 붐에 힘입어 남가주 한인 영화계 인사들이 주축이돼 올가을 영화제를 준비하는 것이다.

지미 리, 크리스티퍼 리, 제이슨 정, 한탁



희 등 영화계 인사들과 이지영, 새론 이 등 젊은 세대들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K타운 국제 영화제'를 설립했다.

이번 영화제 예산은 최소 30만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영화제 주최측은 한국 영화 예술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세계적인 문화 교류 증진과 영화 제작 및 콘텐츠 제작 협력이 주 목적이라면서 젊은 세대들이 대거 참여해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할리웃 K-타운 국제 영화제 추진 관계자들이 지난 4월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제 취지를 설명하면서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 명품도 저렴하게 구입하고 환경 보호도 하니 일석이조



##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

최근 명품 업체들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생산 과정에서의 친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등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비싼 가격에 구입했지만 막상 자주 들게 되지 않는 명품 브랜드 가방이나 신발, 액세서리 등을 되 파는 이른바 '중고 명품' (Pre-Owned Luxur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스톤 컨설팅 그룹은 글로벌 명품 중고 시장규모가 지난 2018년 1.38조 달러에 달했고 올해까지 약 9%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늘은 명품 매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핫' 한 명품 중고 거래 사이트인 '패션파일' (Fashionphile.com)과 '포쉬마크' (Poshmark)를 소개하고자 한다.

### ◇패션파일(Fashionphile.com)

캘리포니아 칼스배드에 본사를 두고있는 패션파일은 샤넬, 구찌, 루이비통, 에르메스, 팬디, 프라다, 셀린, 버버리, 티파니, 반클리프, 불가리, 카르티에 등 유명 브랜드의 중고 가방, 신발, 액세서리를 취급하는 사이트다.

일반 '위탁판매 사이트'에서는 물건을 올리면 구매자가 나타나야만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패션파일은 이와 달리 자체내에서 먼저 '바이아웃' (Buyout) 견적(Quote)을 내주고, 판매자가 이를 수락하면 거래가 바로 성사된다. 패션파일 사이트에 어카운트를 만든 후, 판매할 제품의 사진을 찍어 간단한 제품 상태 설명과 함께 올리면 며칠 안으로 패션파일로부터 구매 견적을 받을 수 있다.

견적이 마음에 들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쉬핑 레이블을 사용해 판매 물건을 보내면, 물건 도착 후 며칠이내로 판매금을 보내준다. 판매금은 은행 다이렉트 디과짓, 패션파일 스토어 크레딧, 파트너 스토어인 니먼마커스 백화점 스토어 크레딧(스토어 크레딧으로 받을 경우 판매금의10%를 추가로 더 받는다), 체크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중고 명품 판매만큼 구매도 편리하다. 패션파일에서는 오리지널상자와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의 '기프트블' (Giftable), 사용 흔적이 없는 '뉴' (New), 최상급인 '엑설런트' (Excellent), 꽤 좋은 '베리 굿' (Very Good), 좋은 '굿' (Good), 양호한 '페어(Fair)', 약간 문제가 있는 '플라드' (flawed)의 일곱 가지 등급으로 제품을 분류해 판매한다. 높은 등급의 경우 새것 같은 제품도 많고, 낮은 등급도 꼼꼼이 살피면 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찾을 수 있다.

인기 품목이 아닌 경우 시즌이 지난 아이템은 매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 패션파일은 자체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전제품의 진품 여부를 보장하며, 가품인 경우 100% 환불을 약속한다. 이 밖에 물건 값의 일부를 먼저 지불하고 60일 내 잔액을 원하는대로 나눠서 낼 수 있는 '리저브' 프로그램과, 구입했던 물건을 사용하다 1년 이내 다시 되 팔면 금액의 최대 75%(3개월 이내에 되 팔 경우)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 '리프레쉬' 프로그램 등도 눈여겨 볼만 하다.

### ◇포쉬마크(Poshmark)

두번째는 오픈 중고 거래 사이트인 포쉬마크다. 판매자가 사이트에 가입을 한 뒤 직접 물건을 올리고, 구매자가 구입을 하는 '오픈 플랫폼' 으로, 판매자가 가격을 원하는대로 책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500불 이상 고가의 제품 거래시 '포쉬 프로텍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명품같은 고가의 제품을 사고 팔기에 좋다. 포쉬 프로텍트란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면, 포쉬마크 본사에서 직접 물건을 받아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 카드와 함께 자체 포장을 해서 구매자에게 직접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구매자는 검증된 물건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판매자 역시 구매자가 엉뚱한 물건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할 가능성이 없으니, 안심하고 물건을 보낼 수 있다.

패션파일은 일반 구매는 30일내 리턴을 허용하지만, 리저브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리턴이나 캔슬시 10%의 캔슬비용을 요구한다. 포쉬마크는 모든 거래가 '파이널 세일' (단, 물건이 사이트 설명과 다르거나 진품이 아닌 경우는 예외다) 이다.

제품 사진과 설명을 꼼꼼이 살피고, 신중한 구매를 한다면 환경 보호에 일조하는 바람직한 득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서)지은 기자



스텔라 맥카트니의 클러치 백. 대부분의 시즌이 지난 아이템은 시중 판매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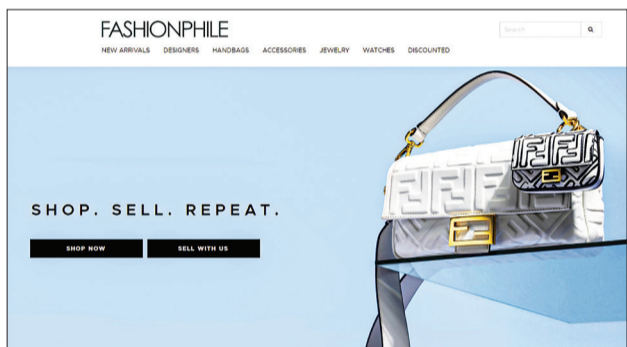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에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템을 구입할 수 있으나 시중 판매가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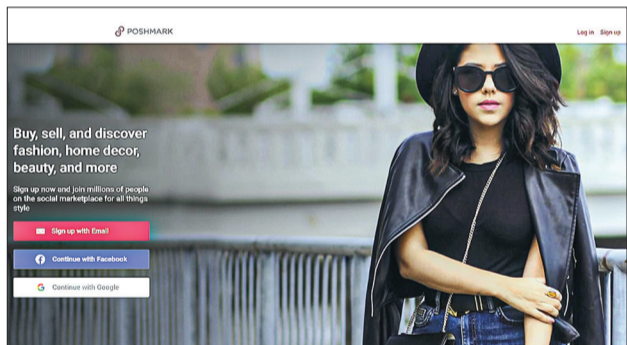
중고 명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샤넬 CC뷰티 클러치.



500달러 이상 제품 거래시 본사에서 직접 물건을 받아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진품 인증 카드를 함께 보내주는 포쉬 프로텍트 프로그램.



글로벌 명품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내 가장 핫한 중고 명품 사이트인 패션파일 웹사이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포쉬마크.



패션파일은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진품 인증 카드를 함께 제공한다.

### 홍(서)지은 기자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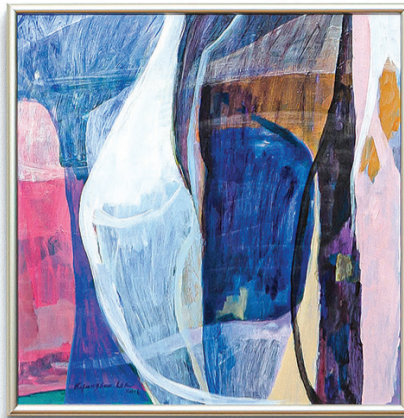
USC 동양학과 심리학 전공  
라디오 서울·미주 한국일보 기자  
현 공인 회계사·슈퍼맘  
소셜미디어·웰빙 기사 다수 게재



'Move it Forward'



'Harmony'



'Transition'



'A Simple Beauty'  
acrylic on canvas, painting by Kyungsoo Lee.

## “그림은 노력한 만큼 보이는 내 마음의 거울”

### “지나친 욕심·강박감 버리고 스스로를 즐겨라”

나는 꽤 오랜 시간 가르치는 일을 해왔다. 미술대학을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아이들 그림지도를 시작으로, 대학원 때는 캠퍼스 내의 부속 중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일한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대학에서 미술관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런 이유로 그림 그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은 나의 일상이 되었고, 오랜 시간의 경험들은

값진 추억과 함께 내 그림 인생의 선물로 남아있다. 반복되는 훈련으로 나 스스로 가르치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실천의 노하우는 덤이 되었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마음 가는 데로 자유롭게 그리면 돼요”라는 답을 준다. 다소 성의 없고, 추상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결

국엔 그 말이 맞는다. 대부분 그림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첫마디가 “난 그림을 그릴 줄 몰라요”, “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라며 자신감 없음을 호소한다.

그림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근사한 그림을 그릴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만큼 결과물이 나와주질 않으니 애가 타는 것이다.

모든 학습에는 기본기를 착실히 익혀야

함이 요구되지만, 그 외에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은 그림 그리는 일에도 예외일 수 없다. 그깟 그림 나도 그리면 되지 하고 알보다가 모두 혼쭐이 나는 것을 자주 보았다. 그렇다. 그림은 생각만큼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남이 그려놓은 그림 평은 하기 쉬워도 막상 내가 하려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손으로 무언가를 쥐는 본능이 있다. 자라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손에 뭔가를 쥐고 여기저기 낙서를 한다. 그게 바로 그림 그리기의 시작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선을 긋고 형상을 만들고 또 색을 입힌다. 이해할 수 없는 자기만의 화면을 구성하며 인간의 최고 단계 욕구인 “표현”이란 것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재미를 느끼면서 낙서 놀이를 시작한다. 아무런 계산 없이 그린 놀이여서 순수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스스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습득한 것이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미술 시간이 교과과정의 일부여서 전문적인 않아도 폭넓은 교양으로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전문가가 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개개인의 소질과 흥미에 차이는 있지만 간단한 그림 정도는 그릴 줄 안다. 문제는 그다음. 자신의 그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비교평가를 한다. “내가 제일 못 그려서...” 절대로 도움 되지 않는 자기비하를 한다. 테크닉의 정도나 노력해서 얻어진 기량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림은 공식화된 답을 원하지 않음으로 각자의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표현된 자신의



'Spanish Dancers' digital art by Bruce Thacker.



# 의식과 무의식 세계의 경험 이야기



① 'Landscape #1' mixed media on canvas.  
 ② 'Landscape #2' mixed media on canvas.  
 ③ 'Remembrance' mixed media on canvas.



최성호 작가

## 최성호 개인전

5월 8일~28일 리앤리화랑  
 풀라쥬·부조 작품들 선보여

푸른색의 그림이 트레이드 마크로 여겨졌던 화가 최성호 씨의 개인전이 5월 8일부터 28일까지 리앤리화랑(이아그네스)에서 열린다. 오랜 기간 풍경(Landscape), 회상(Remembrance) 등을 작품의 테마로 삼아 작업 활동을 해 온 그의 최근 작품에서는 울긋불긋한 색들의 조합이 눈에 뜨인다. 그의 작품에서 표현되는 풍경이란 눈에 보이는 단순한 외면적인 것을 넘어선 내면의 풍경들이다.

그동안 작가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일과 풍경들, 외부세계와 내면의 세계,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오가며 경험했던 모든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엔 구체적인 이미

지와 추상적인 감정의 이미지들이 함께 공존한다.

“나는 주로 종이 위에 드로잉과 페인팅, 판화기법이 섞인 작업들을 한다. 연필이나 먹, 물감 등으로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다른 색으로 덮거나 텍스처가 있는 판으로 찍은 후 긁어내거나 사포로 벗겨낸다. 그 과정을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층을 만들어가며 많은 색들과 많은 이미지들을 겹치고 또 겹친다.” 작가가 설명해 주는 제작 기법이다. 수많은 이미지와 색들이 겹쳐져서 결국엔 형태도 없어져 버린 모노톤 조의 색과 선들이 어지럽게 남겨지기도 한다. 그

것은 생명의 씨앗이거나, 의식과 무의식의 기억 속에서 소환된 불분명함의 표현이 되기도 한다. “마치 우리들의 영혼 속에 각인된 희망과 슬픔, 기쁨과 고통, 사랑, 절망, 또는 욕망과 좌절의 삶의 일기가 나열된 추상적인 풍경의 결과물”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이번 전시에는 이러한 작업물들을 잘라 풀라쥬로 재구성한 작품들과 마른 나뭇가지들을 사용한 부조 작업들도 함께 선보인다.

작가 최성호는 동국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일본 도쿄 아트앤 디자인 인스티튜트에서 판화를 공부했으며

산페드로에서 LS Gallery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미 1년 전에 기획되었던 이번 전시회가 팬데믹으로 미루어졌고, 이제 코로나 19의 긴 터널을 지나려는 시점에 마련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 이는 이아그네스 관장의 설명이다.

이경수 글

▲기간: 2021년 5월 8일~28일까지  
 ▲장소: 리앤리화랑(3130 Wilshire Blvd. #502, LA, CA 90010)  
 ▲시간: 오전 11시~오후 5시(화~금), 오후 12시~오후 4시(토요일), 일·월요일 휴관  
 ▲문의: (213)365-8285

세계가 값진 것임에 자랑스러워했으면 한다. 그림은 테크닉 자랑대회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거다.

카와이대학에서 미술을 강의할 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시간은 작품평가 시간이었다. 같은 주제 하에 그림이 완성되면 동그렇게 모여 앉아 자유롭게 그림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다. 본

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영감을 얻기도 하고 없던 아이디어도 생기게 된다.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본인 스스로 자유로워야 한다. 잘 그려야 한다는 지나친 욕심과 강박관념을 버리고 즐겨야 한다. 예술교육은 즐길 수 있을 때 최상의 몫을 다한다.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꾸준히 하

게 되면 좋은 그림은 저절로 되는 것이다.

미술계의 거장 피카소도 “백 장의 그림을 그려야 온 좋게 한 장의 좋은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처음부터 걸작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많은 연습을 통해 다져진 기본기와 예지력과 재능이 보태지면 금상첨화다.

어떡하면 그림을 잘 그릴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나 자신이 꾸준한 노력을 해왔나 반성이 필요한 거다. 못하느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먼지에 덮여있는 화구를 꺼내어 시작해 보자.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면 기대 이상의 그림이 나를 반길지도 모르니까... 그림은, 내가 노력한 만큼 보이는 내 마음의 거울이다.

# “가족의 달 5월, 하루 한 가지 사랑 표현하기”



김동희의  
**세상보기**  
커뮤니티 헬스워커

5월은 사랑과 감사의 달이다.

한국에서는 5월 5일 어린이 날을 시작으로 5월 8일은 아버지 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기념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스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년 5월 두 번째 주 일요일은 마더스 데이로, 5월 첫 주는 교사 감사 주간(Teacher Appreciation Week)으로 정해서 기념한다.

꽃과 카드, 선물에 마음을 담아 보내는 5월이 되면 꼭 생각나는 달력이 한 가지 있다. 몇 년 전 5월, 부모교육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곳에서 받은 ‘자녀를 위한 친절 실천 달력(Daily Acts of Kindness Towards Children

Calendar)’이다. LA지역사회아동학대 예방 위원회에서 제작, 홈페이지(www.lachildabusecouncils.org/prevention-materials)를 통해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등으로 배포한 자료다.

내용을 살펴보면 친절은 물론이고 사랑이나 감사, 배려 등의 마음을 가족이나 이웃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휴식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무료로 아이 돌봐주거나 오래된 장난감을 필요한 아이에게 전해주는 방법 등은 작은 배려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례다. 아이들이 그동안 고마워 한 사람에게 직접 편지를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아이들

과 라디오를 켜고 함께 춤을 추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도 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거나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는 일은 자녀들을 위해 생각해내기 어렵지 않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실천 달력’을 벽에 붙여 놓고 한 가지씩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 사랑, 자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심전심이라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글, 그림, 노래, 춤, 말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시간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5월이 되길 바란다.



실천 달력							5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옛날이야기 해주기 책 읽어주기	칭찬하고 용기 북돋아 주기	건강한 음식을 먹는 날로, 가족 식사 전통 만들기	자녀의 이야기와 꿈을 경청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감 높이기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일 칭찬하기	함께 노래 부르기	함께 그림을 그려서 냉장고에 붙여놓기	
운동이나 가족 스포츠 즐기기	자녀에게만 할애 하는 시간 갖기	휴식이 필요한 다른 부모를 위해 무료로 아이 돌봐주기	자녀가 듣는 곳에서 다른 사람 칭찬하기	아이들과 함께 동물원/미술관 방문하기	오래된 장난감을 골라 필요한 아이들 에게 나눠주기	아이가 가장 좋아 하는 게임함께하기	
함께 요리해서 이웃과 친구에게 나눠주기	포옹이나 하이파이브 등 애정 표현하기	라디오를 켜고 자녀와 함께 춤추기	본인 스스로를 위해 편안한 여가 즐기기	아이들과 함께 소방서/도서관 방문하기	가족 모두와 포옹 하기	가족과 함께 산책 하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가르치기	가족 영화를 보면서 팝콘 함께 먹기	부모의 워크숍에 참석하기	아동 학대 의심 사항에 대한 신고 방법, 관련 사항 배우기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일에 대해 물어보기	아이들에게 사랑 한다고 말하기	온 가족이 함께 공원으로 소풍 가기	
온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 준비하기	자녀가 좋아하는 교과목에 대해 이야기하기	다른 가족과 함께 하는 놀이 계획 세우기	이웃들과 만나는 시간 갖기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	가족만의 즐거운 밤 시간 즐기기	아이들이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나 카드 보내기	

## 알아두면 쓸모있는 의료 영단어(4)

### Insomnia: 불면증 (인슈미니아)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일. 잠들기가 어려운 입면 장애와 잠은 들지만 자는 도중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잠에서 깨어나는 수면유지 장애를 뜻한다.

### Alzheimer's disease: 알츠하이머병

수십 가지의 치매의 원인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이다. 발병 이후 3~30년 정도 점진적으로 진행, 악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치매 환자 중 60~80%는 알츠하이머병이 원인이다.

### Dementia: 치매 (디멘시아)

후천적인 뇌손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을 뜻하는 포괄적인 개념. 치매의 원인이 되는 질환은 80~90가지가 있다.

### Parkinson's disease: 파킨슨병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 치매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으로 뇌 신경세포 손상으로 손과 팔에 경련이 일어나고 보행이 어려워진다.

조선일보LA 메디케어 칼럼니스트

# 구영순

## 무료상담 메디케어·메디칼

### (213)595-4700 | (323)482-2966

#### 구영순 메디케어 칼럼

### 1 메디케어가 무엇인가요?

메디케어의 종류(국가보험 A&B/민간보험 C&D)

메디케어는 파트 A(병원입원보험) 파트 B(의료 보험) 파트 C(우대보험) 파트 D(처방약보험)의 4가지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A: 10년 이상 즉 40쿼터 이상 소셜시큐리티 세금 납부자는 특별한 파트 A 보험료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10년의 40쿼터를 채우지 못한 사람은 모자라는 부분을 몇 년 더 세금보고를 해서 채우든지, 아니면 모자라는 기간 부분만큼 보험료를 지불하고 파트 A 보험을 사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매달 보험료를 지불하고 파트 A 보험을 사서 사용해도 된다.

파트 A 혜택은 병원입원, 재활시설, 홈케어, 호스피스 케어와 같은 의료비의 80%에 대한 혜택을 메디케어에서 받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은 세금보고를 안했지만 배우자가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10년 이상 했다면 배우자와 같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 미만의 장애자도 24개월 장애자 혜택을 받은 분은 메디케어 파트 A, B를 받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메디케어 처음 가입 시기는 65세 생일 달의 앞 뒤 3개월 즉 3개월 이다.)

전화상담 구영순. (213) 595-4700

- 메디케어, 메디칼 있으신 분
- 65세가 되어 처음 메디케어 받으실 분
- 치과, 한방, 보청기, 안경... 필요하신 분
- 이사하신 분, 직장보험 탈퇴하신 분, 기타...
- OTC(일반 건강용품) 많이 원하시는 분
- 보험(HMO) 있으신 분도 더 적합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 여러 보험회사 상품 취급합니다.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환불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전화예약 후 상담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선스 에이전트  
CA LIC. #OF37947

※시니어 보험을 제일 잘 아는 수호천사보험이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 수호천사보험

“정직합니다. 실력과 경험도 풍부합니다.”

2140 W. Olympic Blvd. #214, Los Angeles, CA 90006

구영순보험은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4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www.seoulmedicalgroup.com](http://www.seoulmedicalgroup.com)



 **NONGSHIM**<sup>®</sup>  
**SHIN**  
 SINCE 1986

*Just Act on Your  
Spicy Instinct!*

